

2009학년도  
석사학위논문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의  
동아시아적 분포와 변이

지도교수 : 김 현 선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유 정 민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의  
동아시아적 분포와 변이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2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유 정 민



유 정 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09년 12월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 례

I. 서론	1
1.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1.2 선행 연구사 검토	2
1.3 연구 방법	4
II.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창세신화 비교	
2.1. 한국과 일본의 창세신화 자료	7
2.1.1. 한국의 창세신화	7
2.1.2. 일본의 창세신화	36
2.2. 한국 <창세신화>의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	45
2.3. 일본 <창세신화>의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	53
2.4. 우리나라와 오키나와 신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55
III.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의 동아시아적 확대 가능성	57
IV. 결론	66
참고문헌	70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무속 신화 속에 존재하는 한국의 창세신화를 본토 지역과 제주도 지역으로 나누어서 신화소를 비교 · 분석하고, 일본 류큐(琉球) 지역 미야코에 전승되는 창세신화 <宮古島신화>와 與論島에 전승되는 <불씨>신화를 중심으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 · 분석하고 그 변이를 고찰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의 변이와 분포를 몽골 지역 부리아트족의 창세신화에서 찾아보았다.

한국 본토의 창세신화는 북부지역 김쌍돌이가 구연한 <창세가>를 중심으로 신화소를 추출하였다. 핵심 신화소로 천지개벽, 창세신의 거신적 면모, 물과 불의 근본, 인간창조, 인세차지경쟁, 일월조정으로 나누어서 비교 · 분석하였다.

제주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창세신화 중 <베포도업침>과 <천지왕 본풀이>를 중심으로 신화소를 추출하였다. 핵심 신화소로 천지개벽, 수명장자 정치,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 아들의 부친탐색, 해와 달의 조정, 인세차지경쟁으로 나누어서 비교 · 분석하였다.

한국의 창세신화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신들이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인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가지는 의미와 의의를 고찰하였다.

본토에서는 미륵과 석가가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모습이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 속에 잘 나타났고, 제주도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모습이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 속에 나타나 있다.

신들이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방법으로 '꽃 피우기 경쟁'을 한 것은 꽃이 가지는 생명력과 그 생명력을 피워낼 수 있는 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경쟁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인간세상을 신들은 다스리고 싶어 했다. 미륵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잠을 자면서 꽃을 피웠고, 석가는 미륵이 피워낸 꽃을 자신의 무릎에 몰래 올려놓았다. 석가가 속임수로 꽃



을 피워 인간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지만 인간 세상에 악이 만연할 것이라는 미륵의 예언이 있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만연한 것은 신들이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속임수를 쓴 것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류쿠(琉球)지역 미야코에 전승되는 창세신화 <宮古島신화>와 興論島에 전승되는 <불씨>신화 속에서 미륵과 석가가 창세신으로 나타나고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류쿠(琉球)지역 신화 속에서도 미륵과 석가의 인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방법으로 꽃 피우기 경쟁을 하며 미륵이 잠을 자면서 피운 꽃을 석가가 몰래 자신이 피운 꽃으로 속여서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 한국과 일본 류쿠(琉球)지역에 미륵과 석가가 창세신으로 나타난 것은 불교 전파의 영향과 같은 문화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몽골 지역 부리아트족의 창세신화 속에서 석가와 미륵의 꽃피우기로 나타난다. 미륵이 도자기에서 피운 빛나는 꽃을 석가가 속임수로 바꿔치기 한 것은 인간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석가의 마음이 잘 나타나며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창세신화의 핵심 신화소로 동아시아의 확대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석가가 인간세상을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차지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 세상에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을 보존해주고 소중히 다스리고 싶었던 마음,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 I. 서론

## 1.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모든 신화는 이 세상과 더불어 존재하는 어떤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강력한 실재, 신들의 세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실재에 대한 믿음이 신화의 근본적인 주제가 된다.

신화는 역사 저편에 있는 인간 존재에 내재한 영원성을 지향하는 예술 작품이다. 신화를 자기만의 삶에 적용시켜 실재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신화는 아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sup>1)</sup>

신화를 연구하는 일은 신화 전승자들이 가졌던 세계관, 자연관, 역사적 인식 등을 탐구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신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새로운 통찰력으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

창세신화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세계, 인간, 사물의 창조 과정이 창세신화의 주요 내용이고, 그 중 태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포함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사건이 창세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다.<sup>2)</sup>

우리는 창세신화를 생각할 때 주로 성경의 <창세기>를 떠올린다. 그리고 하느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우리에게도 창세신화가 있는가? 우리에게도 많은 창세신화가 존재한다. 창세신화 속에는 창세신화로서의 면모와 신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티프 즉 신화소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창세신화는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하는 노래 속에 들어 있다. 우리가 창세신화를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 본래의 모습을 찾고, 우리가 생겨난 내력을 창세신화를 통해 알기 위해서다. 우

1) 카렌 암스트롱,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pp8-18.

2)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p10-11.





리는 창세신화의 존재가 인간에게 주는 의미를 알고, 인간 존재가 더 없이 소중한 함을 깨닫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창세신화는 한국 본토의 창세신화와 제주도의 창세신화로 나눌 수 있다. 본토의 창세신화는 신화적 내용이 풍부하고 신화소가 다양하다. 또한 신의 명칭이 ‘미륵’과 ‘석가’로 나타난 것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윤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창세신화는 본토의 창세신화와 다르게 더 순수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제주도 창세신화는 하늘에서 신격이 내려와 지상의 여신과 결합하고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신격을 낳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한국 본토와 제주도에 전승되는 창세신화의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분석하고, 일본 류큐(琉球)지역 미야코에 전승되는 <宮古島신화>와 與論島에 전승되는 <불씨> 신화를 한국의 창세신화와 비교·분석하고 변이를 고찰해 보겠다. 그 방법으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통해 인간세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신들의 다툼의 불가피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왜 신들은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꽃 피우기 경쟁’을 했는가? 신들의 다툼인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의의는 무엇인가? 속임수를 써서라도 인간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신들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창세신화의 핵심 신화소로 한국 본토와 제주도 일본 오키나와와 몽골 지역 부리아트족 창세신화에까지 널리 분포되어 나타나는 신화소를 비교 분석해 보고 그 변이를 고찰해 보겠다.

## 1.2. 선행 연구사 검토

창세신화의 핵심 신화소인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다룬 연구는 몇 가지 쟁점과 연구사 진행의 일정한 전환이 되었다.

창세신화의 자료는 대부분 무당이 부르는 본풀이 속에 들어 있다. 민속학자 손진태가 무가채록에 힘썼으며, 1923년 8월 12일 함남 함흥군 운전면 봉궁리



의 큰 무녀인 김쌍돌이가 제공한 무가인 <창세가>를 채록하였다. 손진태에 의해 우리나라의 무가 연구가 시작되었다.

창세신화가 가장 풍부하게 전승되는 지역은 제주도이다. 현용준<sup>3)</sup> 교수는 제주도의 개벽신화에 주목했다. 제주도 창세신화의 독자성에 유념하면서 제주도 창세신화의 문화적 계통은 어디에 분류되는지를 검토했다.

서대석은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sup>4)</sup>에서 창세시조신화의 신화소를 추출하고 신화소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는 천지개벽, 인간창조, 일월조정, 인세차지 경쟁, 시조의 출생 과정 등 의미와 변이에 주목했다.

김현선<sup>5)</sup>은 창세신화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각 자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신화소를 비교 논의 했으며, 제주도와 본토의 자료수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일본지역의 창세신화와 비교하여 연구했다. 또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오키나와 지역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신화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박종성<sup>6)</sup>은 창세신화의 지리적 특성을 세분화하고, 북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 제주도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 특징을 밝혔다. 창세서사시 공통 전승의 신화적 의미 및 창세서사시 변이 전승과 시대적 변천을 밝혔다.

대림태량<sup>7)</sup>은 한국과 오키나와의 무가와 신화 사이에 현저한 일치점이 있음을 처음으로 주목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의를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본토와 제주도 지역의 창세신화의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분석하고,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창세신화의 신화소를 추출하여 한국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본토와 제주도, 일본의 오키나와 창세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창세신화의 핵심신화소인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비교·분석하여 ‘꽃 피우기 경쟁’이 창세신화소로

3) 현용준,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제주도 연구』, 제5집, 제주도연구회, 1988.

4)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 연수실 1980.

5)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6)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서울대 박사학위논문)

7)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p491-495.



서 보여주는 의의를 말하고자 한다.

또한 동아시아 몽골지역의 부리아트족 창세신화에서도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나타난다. ‘꽃 피우기 경쟁’이 동북아시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 1.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창세신화 텍스트를 선택하여 해석하고, 창세신화가 창세신화로서 갖추고 있어야할 신화소를 추출하여 텍스트를 비교·분석하는 방법과 구조적 분석의 방법으로 변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창세신화가 여러 지역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적으로 본토와 제주도로 나누고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분석 하겠다. 그리고 일본 류쿠(琉球)지역 미야코에 전승되는 <宮古島신화>와 與論島에 전승되는 <불씨>신화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변이를 고찰해보겠다. 또한 동아시아의 확대가능성을 몽골 지역 부리아트족의 창세신화에서도 찾아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본토의 창세신화로 김쌍돌이가 구연한 <창세가>를 중심으로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분석하겠다. <창세가>에서 창세신인 미륵신이 등장하여 어두운 혼돈을 정리하는 천지개벽 신화소, 창세신의 거인적 면모와 신성성을 지닌 미륵님의 거신적 면모 신화소,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인 물과 불의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인 물과 불의 신화소, 창세신인 미륵님의 축사를 통해 금쟁반과 은쟁반에 금벌레와 은벌레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금벌레, 은벌레가 인류의 시조인 남녀로 되는 신화소인 인간창조 신화소,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미륵과 석가가 ‘꽃 피우기 경쟁’하는 신화소인 인세차지경쟁 신화소, 해와 달이 들썩 되어 인간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창세신이 해와 달을 하나씩으로 만드는 신화소인 일월조정의 신화소로 나누어 다른 신화와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제주도의 창세신화로는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를 중심으로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베포도업침>에서 천지개벽의 주체는 없지만 혼합된 하늘과 땅을 개벽하는 신화소인 천지개벽 신화소, 부자인 수명장자의 불효와 악행을 징치하는 신화소인 수명장자 징치 신화소, 천지왕이 지상에 와서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인물을 생산하는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 신화소, 지상국 부인의 두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를 찾는 부친탐색 신화소, 해와 달이 들썩 되어 인간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대별왕 소별왕이 각각 하나씩 해와 달을 없애는 해와 달의 조정 신화소, 대별왕 소별왕이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꽃 피우기 경쟁’을 하는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창세신화가 주는 의미와 의의를 생각하고 변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일본 류쿠(琉球)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지역으로 문화적 교류가 빈번했다. 또한 불교 전파의 영향과 같은 문화권의 영향으로 신화 전승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류쿠(琉球)지역에 많이 전승되는 신화들 중에 미야코에 전승되는 <宮古島신화>와 與論島の <불씨> 신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류쿠(琉球)지역 미야코에 전승되는 <宮古島신화>에서 창세신화가 가지고 있는 신화소를 살펴보면, 미륵이 하늘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석가는 지상에서 받는 행위를 했으며, 미륵이 남녀를 내려 보내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한 의미에서 미륵을 창조주로 보는 신화소와 미륵과 석가가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한 ‘꽃 피우기 경쟁’한 신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與論島에 전승되는 <불씨> 신화에서 창세신화가 가지고 있는 신화소인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와 석가가 인간을 위해 불씨 찾는 신화소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한국의 본토 창세신화와 제주도 창세신화와 비교·분석하고 변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 본토와 제주도 지역과 류쿠(琉球)지역의 창세신화의 공통점으로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신들의 경쟁이 ‘꽃 피우기 경쟁’으로 나타난다.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비교·분석하고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주는 의미를 고찰하고, 어떻게 공통된 신화소가 나타나며, 어떻게 변이 되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꽃 피우기 경쟁’에서 신들이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속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신들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속이면서까지 인간세상을 차지하고 싶었는가를 고찰해보고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한다.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창세신화의 핵심신화소가 되는 이유와 ‘꽃’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가 무엇이며, 신이 잠을 자면서 꽃을 피우는 신적인 능력과 잠이 신화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창세신화 속에서 꽃과 인간세상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섯째, 동아시아의 확대 가능성으로 몽골 지역 부리아트족의 창세신화에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창세신화소로 혼돈 속에서 우주가 형성된 모습과 창조주가 석가모니 보르항(석가모니), 마이다르 보르항(미륵불), 에게세 보르항의 세 신이 등장하는 신화소가 있고, 창세신에 의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 지는 인간창조의 과정신화소가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신화소는 한국과 몽골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미대륙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근접한 곳에서 유사한 창세신화의 신화소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의미를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변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는 창세신화의 핵심신화소인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통해 신들이 인간에게 보여준 인간에 대한 애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이 존재하는 인간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간 심리의 밑바탕에 내재된 공통된 심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Ⅱ.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창세신화 비교

### 2.1. 한국과 일본의 창세신화 자료

#### 2.1.1. 한국의 창세신화

창세신화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주의 질서를 만든 신은 누구이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신성한 이야기이다. 창세과정을 이야기하는 신화는 신비함과 신성함을 내포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과 함께 전승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도 서양의 신화처럼 창세신화가 존재하는가? 창세신화가 우리나라에도 무속신화 속에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무속신화는 사제자인 무당이 신의 내력을 노래하고, 신을 위해 신옷을 입고, 신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상을 차리고, 신의 모습으로 춤을 추기도 하면서 구송된다.<sup>8)</sup> 우리의 무속신화 속에 있는 창세신화는 문헌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화가 아닌, 무당이 제자에게 구송되면서 내려오는 살아 있는 신화이다. 무속 신화에 존재하는 한국의 창세신화는 크게 본토 지역과 제주도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본토에 존재하는 창세신화의 분포를 보면, 함흥, 강계, 평양, 오산, 영해, 강릉, 울진 등지에 분포되어 있고, 다른 지역으로는 제주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본토의 북부지역 <창세가>의 신화소를 천지개벽, 창세신의 거신적 면모, 물과 불의 근본, 인간창조, 인세차지경쟁, 일월조정으로 추출하여 비교·분석하고, 제주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을 중심으로 신화소를 천지개벽, 수명장자 징치,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 아들의 부친탐색, 해와 달의 조정,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8)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17.



## 가. 본토의 창세신화 <창세가>

민속학자인 손진태가 1930년 일본에서 낸 《조선신유가편》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가 채록집으로 없어질 뻔했던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료를 제공했다. 1923년 8월 12일에 함남 함흥군 운전면 본궁리에 큰 무녀인 김쌍돌이가 구연한 <창세가><sup>9)</sup>를 중심으로 신화소를 추출·분석하고 의의를 부여했다.

신화소는 신화적인 신성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특성을 가진 모티프로써 창세신화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창세가>의 핵심 신화소로 천지개벽, 창세신의 거신적 면모, 물과 불의 근본, 인간창조, 인세차지경쟁, 일월조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창세신화소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은 창세신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되면서 앞으로 창세신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1. 천지개벽

<창세가> 처음부분에 천지개벽 신화소가 나온다. <김쌍돌이본>은 천지개벽 신화소가 비교적 온전하게 드러나는 자료이다.

한을과 따이 생길 적에  
彌勒님이 誕生한즉  
한을과 따이 서로 부터,  
떨어지지 안이하소아,  
한을은 북개꼭지차림 도도라지고,  
따는 四귀에 구리 기동을 세우고,

<창세가>의 천지개벽은 신의 능력으로 붙어있던 하늘과 땅을 떨어뜨리는 작업으로 표현했다. 미륵이 하늘과 땅이 붙어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어

---

9) 손진태, 『조선신유가편』, 향토문화사, 1930.



둠에서 구리 기둥을 세운 것은 세상에 빛을 끌어들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지창조의 과정이 천지가 혼합된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즉 어둠에서 빛이 출현하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륵이 한 천지개벽의 상황을 분석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으로부터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무의식의 세계는 천지의 혼합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된 세계는 무의식의 힘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쌍돌이본>에서 창세신에 대한 표현은 애매하지만 천지개벽이 창조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성경의 《창세기》는 창조주가 개입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혼돈을 정리하는 유일신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김쌍돌이본>에서도 미륵이 세상의 혼돈을 없애려 구리기둥을 세운 행위는 창세신적인 면모와 거인다운 보습을 보여주었다. 미륵신의 천지개벽은 중국의 반고 신화<sup>12)</sup>에서 큰 도끼를 가지고 휘둘러서 어두운 혼돈을 정리하고 하늘과 땅을 떼어 놓았다는 것과 서로 통하는 창세신의 모습이다.

<정운학본>에서는 우주의 생성이 미륵님의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하늘로서  
昇天을 했고  
그적에야  
미륵님에  
얼굴일랑  
해와 달이

10) 김난주,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2003. pp19-22.

11)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1980.

12) 전인초 외 역, 『중국신화전설』 1, 민음사, 1992,





이상 가고  
미력님에  
귀는 가서  
北斗七星  
이상 가고  
미력님에  
눈은 가서  
밝은 샛별  
이상 가고  
미력님에  
코는 가서  
삼태성에  
이상 가고  
미력님에  
입은 가서  
모에 담을  
이상 가고  
미력님에  
배는 가서  
청 하늘에  
이상 가고  
미력님에  
手足일량  
이상 가고  
미력님에  
일신일량  
재구멍이



이상 간다

- <정운학본> pp. 522-524

<정운학본>에서 미륵님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고, 미륵님의 얼굴, 귀, 눈, 코, 입, 배, 手足, 등은 모두 우주 천체로 변화된 것으로 표현했다. 우주 만물은 신의 몸이 변화되어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아 온 우주에 신이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반고는 혼돈을 없애고 죽음을 통해 신체 하나하나가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기초를 마련했다.<sup>13)</sup> <정운학본>은 미륵의 신체에서 우주생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신화소가 보이는 유일한 자료이다. 해, 달, 별은 우주 천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또한 천체의 구성은 우주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초적 역할을 한다. 미륵이 우주 생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창세신적인 모습이며, 인간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준비하는 작업이다. 미륵은 천지개벽과 함께 있던 창세신이며 우주 만물은 인간세상을 위한 신성한 신의 도움으로 창조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2. 미륵의 거인적 면모

태초의 혼돈상태에서 이 세상을 형성하는 데는 거대한 거인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다.<sup>14)</sup> <김쌍돌이본>에서 나타난 미륵은 우주 만물의 형성과 천지를 분리하는 창세신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우주적 거인으로서의 신성성을 가진 신화소이다.

<김쌍돌이>본에서 보면

미륵님이 옷이 엷서 짓궂는데, 가음이 엷서,

13) 전인초 외 역, 『중국신화전설』 1, 민음사, 1992, pp31-33.

14)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pp30-32.



이산 저산 넘어가는, 버틸어 가는  
 칩을 파내여, 백혀내여, 삼아내여, 익여내여,  
 한올 알에 배틀 노코,  
 구름 속에 영애 걸고,  
 들고짱짱, 노코짱짱 짜내여서,  
 칩장삼을 마련하니,  
 전필이 지개요, 반필이 소맬너라.  
 다섯자이 섭힐너라, 세자이 짓일너라.  
 마리 곡갈 지어되는  
 자 세치를 띄치내여 지은즉은,  
 눈무지도 안이 니려라,  
 두자 세치 띄어내여 마리 곡갈 지어내니,  
 귀무지도 안이내려와,  
 석자 세치 띄어내여, 마리 곡갈 지어내니,  
 턱무지에를 내려왔다.  
 미력님이 탄생하야,  
 미력님 세월에는, 생화식을 잡사시와  
 불 안이 넛코, 생나달을 잡사시와  
 미력님은 섬두리로 잡사시와,  
 말두리로 잡숫고, 이레서는 못할너라.  
 내 이리 탄생하여, 물의 근본 불의 근본,  
 내 밧게는 엽다, 내여야 쓰겟다.

창세신인 미륵을 표현하는데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냈다. 미륵의 식사량은 우주 거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대한 양이며, 옷도 우주 거인이나 입을 수 있는 치수의 크기이다. 大衣, 大食으로 표현한 것은 창세신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며 그 모습이라야만 천지분리를 할 수 있고, 일월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미륵이 생화식을 하고 옷도 입었다는 것은 신의 모습을 사람과 비슷하게 표현한 것으로 인간과 신의 거리를 가깝고 친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미륵의 거인신적인 면모는 <전명수본>에서도 볼 수 있다.

미륵님의 당넛 적에  
낭글 휘여 우막을 티고  
나무 여름으로 노식을 삼고  
낭그 님프로 깃을 삼아  
그러하고 사라감에다  
한말 국에 한말 밥을 먹엇습메다  
전필노 지계를 삼고  
반필노 깃을 달고  
동정을 달아 입어감에다

미륵의 대식과 대의(大衣)가 비교적 간략하게 나타나 있으나 미륵의 외모와 행적에서 거인신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김쌍돌이본>, <전명수본>과 위에서 설명한 <정운학본>에서 공통적으로 미륵의 거신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거인신적인 면모가 문헌에 정착되지 않고, 계속 구전되면서 거인신격에 대한 본질과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 변질되어 신적인 면모가 없어지게 되었다.<sup>15)</sup>

### 3. 물과 불의 근본

물과 불의 창세신화소는 본토에서만 나타난다. 본토의 <창세가>에서 물과 불의 신화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창세신화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성경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가 나는 이야기라든가, 그리스 신화에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서 물과 불의 신화소가 나오지만 우리나라 창세신화에 나오는 물과 불의 근원과는 다르다.

---

15)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p64.



물과 불의 근본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 이리 誕生하야, 물의 根本 불의 根本  
내맛게는 업다, 내여야 쓰갓다.  
풀맷독이 잡아내여,  
스승틀에 올너눗코,  
스문 삼치에 때리내여,  
여바라, 풀맷독아, 물의 根本 불의 根本 아느냐.  
풀맷독이 말하기를,  
밤이면 이슬 바다 먹고,  
나지면 햇발 바다 먹고  
사는 즘생이 엇지 알나,  
나보다 한번 더 번지 본  
풀개고리를 잡아다가,  
스문 삼치 때리시며,  
물의 根本 불의 根本 아느냐.  
풀개고리 말하기를  
밤이면 이슬 바다 먹고,  
나지면 햇발 바다 먹고  
사는 즘생이 엇지 알나,  
내보다 두 번 세 번 더 번지 본  
새양쥐를 잡아다가,  
스문 삼치 때리내여,  
물의 根本 불의 根本 아느냐.  
쥐말이, 나를 무슨 功을 시워주갓슴닛가.  
미력님 말이, 너를 天下의 두지를 차지하라,  
한즉, 쥐말이 금덩山 들어가서



한쪽은 차들이오, 한쪽은 시우쇠요,  
툭툭 치니 불이 낮소.  
소하山 들어가니,  
삼취 술술 나와 물의 根本  
미력님, 水火根本을 알엇스니,  
人間 말하여 보자.

- <김쌍돌이본> p3-6

내 당네가 되면 쪼차  
금목수화토 오행정기  
나누라고 물부텨 남메다  
그술이 따에 흘너  
그때부텨 도랑물과  
우물물과 새암물과  
큰강물이 되엇슴메다.

-<전명수본> pp.100-101.

(노래)

아해-아

한 모로 두 모로 네레모로 가고 보니

(말)

집당에 당징하였는데 인간 사람이 불없이 어찌 사오

물없이 어찌사오

내미(木)없이 어찌 살가

불과 물이 있어야 된다.

생쥐를 부뜰어서 생명 샘지(세번) 드러치니

"풀난디(草露)를 받아 먹고, 덩불속에 업드레 있는 짐상을 무삼일로 생명 샘



재 드레 치오?

"불에 근본을 내라"

"글랑 조차 그러시오 불에 근본으 갈치 디릴 것일랑, 서인님이 잡수끼 前에도 우리 만재 먹겠습니다"

"글랑 그래라"

"취 먹는 건 가리젠읍니다"

"천태산 내맥에 들어가서, 차돌을 놓고 수리 침을 떼 놓고 짐운 산에 쇠에 쇠끝을 놓고 삼 세 번을 드레치며(면) 불에 근본이 나읍니다"

(노래)

불에 근본을 가르쳤소

물에 근본을 가르치자

(말)

풀개고락이 부풀어서 생명 샘재를 들어치니

"덤불섭에 업뎌는 짐상을 무삼 일로 생명 삼재로 치오"

"물에 근본을 가르쳐라"

"글랑 그러시오"

"물에 근본을 가르쳐 디릴 것일랑, 서인님이 잡수끼 前에도 우리 물을 먼저 먹고 혜입이를 치고 놀겠소"

"글랑 그래라"

옥당 기절게 명단 기절게(아무리 좋고 깨끗한 데라도) 풀래구레기 없는 에 없읍니다.

"서임님에(이) 천태산 내맥으 따(地)를 석자 세치 드리 과문, 물에 근본이 나가 주오다"

(노래)

사람 생긴 근본으느 물과 불이 근본이요

-<강춘옥본> pp.16-17.



<김쌍돌이본>에서 미륵은 창세주이면서 물과 불은 창조하지 않고 근원을 물어서 찾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미륵이 물과 불의 근원을 찾기 위해 풀맺독, 풀개고리, 새양쥐를 통해 순차적으로 때리면서 생쥐에게서 물, 불의 근본을 알아내고 새양쥐에게는 뒤주를 차지하라고 말한다. 형틀에 올려 놓고 때리는 행위는 신화적인 상징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불은 금당산의 차돌과 시우쇠를 부딪쳐서 내고, 물은 소하산의 샘물을 가져다가 안다.

<전명수본>에서는 중국의 《주역》에 등장하는 오행상생(五行相生)의 원리에 입각해서 물이 생겨났다고 했다.

<강춘옥본>은 주체가 미륵이 아니라 서인님으로 되어 있다. 생쥐를 붙들어 때리면서 불의 근본을 물었고, 풀개고락을 붙들어 때리면서 물의 근본을 물었다. <김쌍돌이본>과 <강춘옥본>은 물과 불의 근본을 찾는 행위에서 때리는 행위는 같지만 물과 불의 근본을 <김쌍돌이본>에서는 순차적으로 알아내고 <강춘옥본>에서는 물과 불을 분리해서 알아내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 불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과 불은 생명체를 이루고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인간에게 필요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인간을 정화시키는데 필요하다.

불의 존재는 인간을 문화적 존재로 변화시키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며, 생식에서 화식으로의 전환을 가져와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과 인류 발전에 촉매역할을 했다. 미륵신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미륵이 애써서 물과 불의 근본을 찾은 것은 인간세상을 다스릴 신으로서의 노력이고, 인간 세상에 대한 애정을 가진 창세신적인 모습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4. 인간창조

인류의 시작, 인간창조에 대한 신화소는 창세신화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신화소이다. 최초의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한 의문들이 인간창조신화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이다.





옛날 옛시절에,  
미륵님이 한쪽 손에 은쟁반 들고,  
한쪽 손에 금쟁반 들고,  
한을에 축사하니,  
한을에서 벌기 띠러져,  
금쟁반에도 다섯이오  
은쟁반에도 다섯이라.  
그 벌기 질이와서,  
금벌기는 사나회 되고,  
은벌기는 계집으로 마련하고,  
은벌기 금벌기 자리와서,  
부부로 마련하야,  
세상사람으로 나였서라.

- <김쌍돌이본> p6-7

<강춘옥본>에서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과정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사람이라 옛날에 생길 적에 어디서 생겼읍니다(까)

천지 암녹산에 가황사라는 흙을 모다서 남자를 만들어 노니 여자 어찌  
생산될까? 여자로 만들었읍니다.

흙기가 사람이 되는대로서, 살 동안에 따에서 만가지 물건을 내서 잡숫고  
살아 노이려가다가, 사우에 떠나므느 그따에 도로 들어가 흙글 보태게 되었읍  
니다.

- <강춘옥본>p6.

<김쌍돌이본>에서 인간은 미륵님의 축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미륵이 들고



있는 금쟁반과 은쟁반에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져 금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었다. '금벌레', '은벌레'를 미륵에게 내려준 '하늘'의 존재는 인간창조에 더 근원적 기여를 해준 절대신으로 볼 수 있다. 미륵이란 명칭은 불교(佛敎)에서 전래된 것이나 미래신의 성격은 불교 전래 이전부터 숭앙되었던 창세신이라 본다. 미륵에 의해 '금벌레', '은벌레'에서 화생(化生)한 남녀는 최초의 인류인 것이며 인류시조(人類始祖)이다.<sup>16)</sup> 금쟁반에 금벌레, 은쟁반에 은벌레를 받은 것은 해와 달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민담과 상통하는 것으로 해와 달이 남자와 여자로 상징된다고 볼 수 있다.

미륵님이 하늘을 보면서 축사한 것은 우주적인 힘을 가득히 받기위한 기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기원하는 것은 하늘의 힘을 받으려는 행위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강춘옥본>에서 인간을 창조한 방법과 <김쌍돌이본>에서 인간이 변모된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강춘옥본>은 우리의 창세신화소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 일대에 진흙이나 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한 신화소가 널리 분포되고 있는데, 우리의 신화소도 이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sup>17)</sup> 황토로 사람을 만들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만든 주체(主體)가 누구인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창조한 신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김쌍돌이본>에서는 인간의 원천(源泉)을 하늘에 두고 있고, <강춘옥본>에서는 인간의 원천(源泉)을 땅에 두고 있다. 또한 <김쌍돌이본>이 하늘이 보낸 벌레가 사람으로 되었다는 점에서 진화론적(進化論的) 사고(思考)를 보여준다면 <강춘옥본>은 황토(黃土)로 직접 사람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창조론적(創造論的) 사고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sup>18)</sup>

우주 생성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는 것까지도 미륵신이

---

16) 서대석, 「創世始祖神話의 意味와 變異」, p12.

17) 박시인, 『알타이 신화』, 삼중당, 1980, pp.286~290.

18) 서대석, 「創世始祖神話의 意味와 變異」, p13.



관련되어 있다. 미륵이 하늘에 기원하는 모습에서 신의 간절함이 보여지며 인간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륵신이 혼돈된 천지를 정리하고 천체를 생성한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인간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귀한 존재인 인간을 미륵신은 돌봐주고 싶었고, 다스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곳에서든 하늘에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5. 인세차지경쟁

무속신화, 구전신화, 문헌신화 등에 폭넓게 존재하는 신화소는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신격이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김쌍들이본>에서 미륵님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다가 이 부분에 오면 석가님의 세월이라 표현하고 있다.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과 속임수가 개입하면서 인간세상이 달라졌다는 창세신화소이다.

彌勒님 歲月에는,  
섬두리 말두리 잡숫고,  
人間歲月이 太平하고,  
그랬는데, 釋迦님이 나와서서,  
이 歲月을 아사뱃자고 마런하와,  
미러님의 말숨이,  
아직은 내 歲月이지, 너 歲月은 못된다.  
釋迦님의 말숨이,  
彌勒님 歲月은 다 갖다,  
인제는 내 歲月을 만들겟다.  
彌勒님의 말숨이,  
너 내 歲月 앓겟거든,



너와 나와 내기 시행하자,  
 더럽고 축축한 이 釋迦야,  
 그러거든, 東海中에 金瓶에 金줄 달고,  
 釋迦님은 銀瓶에 銀줄 달고,  
 彌勒님의 말숨이,  
 내 瓶의 줄이 끈어지면 너 歲月이 되고,  
 너 瓶의 줄이 끈어지면 저 歲月 아직 안이라.  
 東海中에서 釋迦줄이 끈어졌다.  
 釋迦님이 내밀엇소아,  
 또 내기 시행 한번 더 하자.  
 成川江 여름에 江을 붓치겟느냐.  
 미력님은 冬至채를 올니고,  
 釋迦님은 立春채를 올니소아,  
 미력님은 江 이 맛붓고,  
 釋迦님이 젓소아,  
 釋迦님이 또 한번 더 하자,  
 너와 나와 한 房에서 누어서,  
 모란꼬치 모랑모랑 피여서,  
 내 무렵혜 올라오면 내 歲月이오,  
 너 무렵혜 올라오면 너 歲月이라.  
 釋迦는 盜賊心事를 먹고 반잠 자고,  
 미력님은 찬잠을 잤다.  
 미력님은 무렵우에,  
 모란꼬치 피여 올낫소아,  
 釋迦가 中等사리로 격거다가,  
 저 무렵혜 꼬졌다.  
 이러나서, 축축하고 더럽은 이 釋迦야,



내 무렵헤 꼬치 피엿슴을,  
 너 무렵헤 깃거 꼬젓서니,  
 꼬치 피여 열혈이 못가고,  
 심어 十年이 못가리라.  
 미력님이 석가의 너머 성화를 맞기 실허,  
 釋迦에게 歲月을 주기로 마련하고,  
 축축하고 더러운 석가야,  
 너 歲月이 될나치면,  
 적이마다 솟대 서고,  
 너 歲月이 될나치면,  
 家門마다 妓生나고,  
 家門마다 寡婦나고,  
 家門마다 무당나고,  
 家門마다 逆賊나고,  
 家門마다 白丁나고,  
 너 歲月이 될나치면,  
 함들이 치들이 나고,  
 너 歲月이 될나치면,  
 三千중에 一天居士 나너니라.  
 歲月이 그런즉 未來가 된다.

- <김쌍돌이본> pp8-12

<김쌍돌이본>에서 신화소의 핵심은 창세주와 창세 이후에 출현한 다른 신격의 인세차지경쟁이다. <김쌍돌이본>에서는 미륵과 석가의 대결로 나타나고 제주도 지역의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로 변이된다.

첫째 대결은 동해 중에 금병에 금줄을 달고 은병에 은줄을 달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금병에 금줄과 은병에 은줄은 신화적인 상징으로 해석되어야 한



다. 대결의 경쟁은 미륵의 승리로 귀결된다.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가운데를 의미하고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은 저승과 이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륵의 줄은 그대로 있고 석가의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석가가 땅 위의 세상인 이승을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다.

미륵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무속 중에 무녀가 병으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건지는 의식<sup>19)</sup>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병 속으로 죽은 혼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미륵의 승리가 인간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저승의 영혼을 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석가가 내기에서는 졌지만 끊어진 줄은 하늘의 세계 즉 저승의 영혼과는 거리가 있는 땅위의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신의 준비로 볼 수 있고 석가의 세계가 온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대결은 성천강을 붙이는 것으로 미륵은 冬至채를 석가는 立春채로 강을 붙였다. 강을 열려서 붙이려는 방식과 녹아 있는 상태로 붙이려는 방식의 차이이다.

강물이 얼은 상태는 수로 운반이 어려운 상태로 농경시대로의 이행이 힘들고, 강물을 녹아 있게 한다는 것은 농경시대로의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인간세계를 다스릴 준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석가가 내기에서는 졌지만 인간세계를 다스릴 신의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석가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대결은 미륵의 패배이다. 석가와 미륵의 대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륵의 무릎에 핀 모란꽃을 중등사리만 꺾어서 몰래 석가의 무릎에 옮겨 놓은 것이다.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석가가 미륵을 속인 것이다. 잠을 자면서 꽃 피우기 경쟁을 한 것은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신화소로 신적인 능력을 시험한 것이다. 신들이 왜, 꽃 피우기 경쟁을 한 것일까? 꽃이나 식

19)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p106.



물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주, 세계가 곡물, 꽃과 같은 식물적 체계로 비유되는 것은 고대의 사유체계에서 자주 있었다. 우주도 식물들처럼 혼돈,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체로 파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식물체가 우주, 세계의 부활의 이미지로 사용된 것은 식물이 지닌 신비 때문이다. 식물의 삶 자체는 생명의 신비에 속한다.<sup>20)</sup> 이런 생명의 신비체인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번식,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생명체의 신비는 꽃에만 있는 것이 아닌 생명이 있는 인간세상에 더 뚜렷이 나타나며 그런 생명체가 있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경쟁을 했으며 석가가 속임수로 승리하게 된 것이다. 세상을 창조한 창세신인 미륵은 찬잠을 자면서 온몸으로 꽃을 피웠고, 꽃 피우는 능력이 미륵보다는 미숙한 석가가 속임수로 인간 세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륵은 왜 찬잠을 잤을까? 잠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 잠을 자는 것은 의식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무의식적인 상태로 창조적인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다. 미륵이 잠을 자면서 무릎위에 꽃을 피운 것은 생명체를 탄생시킨 창조적 행위이다. 미륵처럼 생명 탄생의 능력이 있는 신이 인간세상을 다스리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석가가 속임수로 인간세상을 차지하여 인간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 우주의 혼돈이 미륵을 통해 정리되자 새롭게 석가의 속임수로 인간 세상에 혼돈이 생겼으며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 인간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간에 의한 문제이기보다는 신의 속임수 때문이라 볼 수 있다.

## 6. 일월조정

일월조정 신화소는 특정한 신격이 등장해서 해와 달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하나씩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없어진 해와 달을 다시 찾아 해와 달이 하나씩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때는 해도 둘이요, 달도 둘이요,

20) 김난주,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2003. pp27-28



달 하나 띄여서 北斗七星 南斗七星 마련하고,  
해 하나 띄여서 큰별을 마련하고,  
잔별은 百姓의 直星별을 마련하고,  
큰별은 님금과 大臣별노 마련하고,

- <김쌍돌이본>pp.1-2.

서가열세존님 당네가 되어노니  
일월성진도 없슴네다  
어덕나라이 되엿구나  
인도인생 이러면은 엇디 살니(중략)  
맷들기 가는데 쫓차가니  
수미산에 가서  
늦쟁반에 달을 내고  
금쟁반에 해를 내여  
해와 달이 너머 그리워서  
달두 돌이오 해두 돌이오 어더오니  
밤이면은 석나 세치 어러가고  
나지면은 석자 세치 타더가니  
백성이 살 수 없어  
다시금 생각하니  
달두 한아 해두 한아  
절반 갈라노니  
그때부텀 올슴네다

- <전명수본> p.103.

옛날 시절에는 달로 두분이 도드시고  
해도 두분이 도드실제  
철궁에 시윳날 맥여 들고  
해 하나 쏘와 테석궁에 걸어두고





달 하나 쏘와내여 명모궁에 걸어두고

- <이종만본> p. 132.

<김쌍돌이본>에서 미륵은 천지를 분리하고 천지개벽의 주체인 창조주이며 일월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는 신이다.

두 개씩인 해와 달을 하나씩 떼어내어 별을 만든다. 이 때 미륵의 거인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먼저 달을 떼어 칠성류의 별을 만들고, 해를 떼어 직성별을 만들었다. 해와 달을 떼어내어 별을 만든 것은 칠성신앙과 사람의 나이에 따라 만나는 직성운수인 직성신앙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전명수본>에서 미륵의 시대가 가고 석가의 시대가 왔지만 일월성신이 없어져 석가가 인간의 생활을 위해 해와 달을 금쟁반과 놋쟁반에 두 개씩 얻어 간다. <전명수본>의 금쟁반과 놋쟁반은 <김쌍돌이본>에서 금쟁반, 은쟁반이 해와 달이 되었다는 것과 서로 통하는 신화소라고 볼 수 있다.

<전명수본>과 <김쌍돌이본>의 차이점은 <전명수본>은 일월조정의 주체가 인세를 차지한 석가이고 <김쌍돌이본>에서는 일월조정의 주체가 창조주인 미륵으로 되어 있다. 또한 미륵의 구체적인 일월조정 행위가 나타나 있다.

또한 <이종만본>에서는 복수인 해와 달을 활로 쏘아 제거하는 거인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각기 두 개씩인 해와 달 때문에 인간이 생활하는데 혼란스럽고 괴로웠다. 이러한 고통에서 해와 달 하나씩을 제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해와 달을 제거하는 행위는 우주만물 천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신적인 힘과 신적인 능력이 갖추어진 모습이라 볼 수 있다.

#### 나. 제주도의 창세신화 <베포도엮침>, <천지왕본풀이>

창세신화가 가장 풍부하게 전승되는 지역은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본토와 떨어져 있고 문화와 사회적인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본토와



차이가 있는 창세신화가 다양하게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제주도의 창세신화는 심방(무당)의 굿으로 전승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무속 신화의 성격을 지닌 무가를 흔히 본풀이라고 한다.<sup>21)</sup> 본풀이는 본디 무속에 나타나는 신의 내력담이겠지마는, 이것에 주술관념이 첨가됨으로 해서 신의 노여움을 해소시키고, 악신으로부터의 해탈을 피하는 한편, 심신의 안정을 초래케하는 기능이 있다고 믿고 있는 무당의 노래이다.

창세신화의 신화소는 신의 창조적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한다. 여러 편에 등장하는 창세신화의 신화소를 천지개벽, 수명장자 징치,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 아들의 부친 탐색, 해와 달의 조정, 인세차지경쟁으로 추출하여 비교·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천지개벽

천지개벽은 창세신화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핵심적인 신화소이다. <베포도업침>을 통한 천지개벽의 신화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천지혼합으로제일입니다  
엇떠한것이천지혼합입니까  
하날과땅이맛붓튼것이혼합이요  
혼합한후에개벽이제일입니다  
엇떠한것이개벽이뇨  
하날과땅이각각갈나서개벽입니다  
천지개벽이엇떠케되엇스릿가  
하날로부터조이슬이나리고  
따으로부터물이슬이소사나와서  
음양이상통한직, 천개는자하고  
지개는축하고, 인개는인하니

21)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p388.



하늘머리는갑자년갑자월갑자일갑자시에  
 자방으로열이고  
 따머리는을축년을축월을축일을축시에  
 축방으로열이고  
 사람머리는병방으로  
 병자년병자월병자일병자시에열이시고  
 동방으로는이염을드르고  
 서방으로는출리를치고  
 남북방으로나래를들으고  
 천지개벽이되엿습니다  
 하늘은어떤것이하날이나  
 청청맑은 청하날이요  
 잉은이도삼하날, 지하에도삼하날, 지자도삼하날  
 삼십삼천서른세하날, 이것이하날이외다  
 하날은두려운하날, 이것이하날이외다  
 하날은두려운하날, 땅은백사지땅  
 천지간에는무엇이갈입니까, 산도수도끓이라  
 산수중에무엇이몬저낫소릿까, 구별못하옵니다  
 산이나고물이낫소니, 산섭에물아너고  
 물속에산이낫스니, 산으로몬조생기겟나니다 22)

<베포도업침>에서 하늘과 땅이 혼합된 것을 갈라서 천지개벽을 만들었는데  
 행위의 주체자는 없다. 천지개벽 신화소에서 혼합된 하늘과 땅을 개벽으로 변  
 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혼합된 천지를 분리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은  
 개벽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천개는 자하고 지개는 축하고, 인개는 인하니'에  
 서는 신화로서의 의미보다는 중국의 우주생성론과 십간십이지의 영향을 받았

22) 赤松至誠, 『朝鮮巫俗의 研究』(上),1937



다고 볼 수 있다. '하날로부터조이슬이나리고 따으로부터물이슬이소사나와서'는 천지개벽과 함께 천지만물이 생겨나는 신화소이다. 또한 하늘의 청이슬과 땅의 흑이슬이 합하여 천지만물이 생성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결합이 천부지모적 신화구조와 흡사하다. '동방으로는 이엄을 드르고 서방으로는 출리를 치고 남북방으로 나래를 들으고 천지개벽이 되엿습니다'에서 구체적으로 천지개벽을 형상화했다. 잇몸, 꼬리, 날개라는 새의 형상을 통해서 천지개벽을 표현했다.<sup>23)</sup>

<창세가>의 미륵과 같은 창세신적인 존재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늘과 땅의 혼합에서 천지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조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물이슬이 솟아나서 천지만물이 생성됨을 나타냈다. 우주 만물의 존재는 천지개벽에서 시작되었고, 새의 모습으로 천지개벽을 형상화했다. <창세가>에서 혼합된 하늘과 땅에 구리기둥을 세워 개벽시킨 것을 <베포도업침>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없이 방위를 가리키고 있다. 천지개벽은 <창세가>, <베포도업침>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은 다르지만 하늘과 땅을 혼합된 상태에서 갈라 놓는 행위로 창세신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2. 수명장자 징치

창세 신화소에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화소가 있다. 수명장자 징치담은 부자인 수명장자가 불효 또는 악행을 해서 이를 징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료마다 많은 신화소의 차이가 있다.

문창현 필사 <천지왕본><sup>24)</sup>에서 수명장자 징치담이 처음에 등장한다. 핵심적인 신화소를 정리했다.

- (1) 수명장자 칠대조 당조부거지가 이승에서 한 약속으로 저승에 와서 기제사를 찾아 먹지 못한다.

23)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93-p96.

24) 문창현, 『풍속무음』, pp1929-1945.



- (2) 이 사실을 저승의 염라대왕이 알고 옥황상제에게 알린다.
- (3) 옥황상제는 천지왕에게 수명장자의 행실을 훈계하라 명한다.
- (4) 천지왕이 박우왕 집에 내려온다.
- (5) 박우왕은 수명장자에게 쌀을 빌려, 천지왕에게 저녁을 대접한다.
- (6) 천지왕은 박우왕의 딸인 총명아기를 부른다.
- (7) 총명아기는 천지왕에게 수청을 들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하고, 증거물을 얻어 둔다.
- (8) 천지왕이 수명장자 집에 도착해서 갖가지 이적을 행하나 수명장자가 아랑곳하지 않는다.
- (9) 천지왕이 옥황상제로부터 바람과 풍수, 그리고 화덕진군 '해명'이를 데려온다.
- (10) 수명장자의 모든 재산을 천지왕이 없앤다.
- (11) 천지왕이 수명장자에게 "당신 일생은 타인에게 연유하니, 온순이 하라."고 지시한다.
- (12) 수명장자가 개과천선하여 다시 부자가 된다.

수명장자의 불효와 악행이 인간세계만이 아닌 저승세계에까지 알려진다. 악행을 처단하기 위해 천지왕이 지상에 내려온다. 또한 천지왕이 총명아기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다시 개과천선하여 부자가 되게 하는 장면에서 불교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수명장자 징치가 왜 창세신화에 등장해야 하는가? 그것은 저승과 이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승의 세계가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에서 보여주는 악이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행은 하늘에서 다스린다는 선악관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것은 신과 인간세상의 악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인간세상이 바르게 설 수 없게 된다는 도덕관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악행은 하늘이 알고 있으며, 하늘이 다스리고 벌을 준다는 인과응보사상이 반영되었고 생각된다. <장자못전설>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 3.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

제주도 지역의 창세신화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창세신화의 신화소이다. 천지왕이 지상에 와서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인물을 생산하는 것은 중요한 신화소이다.

문창현 필사 <천지왕본><sup>25)</sup>을 중심으로 천지왕이 박우왕의 딸 총명아기와 결연하는 이야기이다. 천지왕이 지상에 머물면서 지상의 여인과 인연을 맺어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인물을 낳게 된다.

박우왕의 집에 도착한 천지왕은 저녁 대접을 받기위해 수명장자에게 백미 한되를 꾸어오게 하고 실제로 간 사람은 총명아기이다. 총명아기가 꾸어온 백미 한 되에는 돌이 섞여 있고 돌을 고르자 천지왕이 ‘채와 푸는 채’를 사용하도록 돌 고르는 방법을 알려 준다.

천지왕은 박우왕의 딸을 천지왕 방으로 들여보내기를 요구한다. 박우왕은 대접을 잘 했음에도 지나친 요구에 탄한다. 그러나 총명아기는 천지왕을 찾아가 동침하여 인간과 신과의 인연을 맺게 된다. 방으로 찾아온 총명아기를 보고 천지왕은 꽃이 나비를 찾아오는 격이니 자연의 이치로는 나비가 꽃을 찾아가야 하는 법과 어긋나므로 “인간에는 거꾸로 될 일이 만하개다”라고 이른다.

총명아기는 천지왕에게 자식을 낳으면 짓게 될 이름을 묻는다. 천지왕은 ‘대벨왕, 소벨왕’으로 지으라 하고 천지왕은 ‘각씨 한 개’를 총명아기에게 주고 총명아기는 ‘향남빛’을 반을 꺾어 천지왕에게 준다. 후에 아버지를 찾아간 두 아들에게 천지왕은 증표를 요구한다. 외가의 명을 묻고 향남빛 반쪽으로 맞추어 보고 자식으로 인정한다.

천지왕과 총명아기의 결연은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자식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훗날 부친을 찾기 위해 증표를 얻었다. 천지왕과 총명아기의 결연은 하늘의 신과 지상의 인간과의 결합이고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신의 혈통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신격은 하늘과 인간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지상의 인간을 중시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5) 문창현, 『풍속무음』, pp1929-1945.



#### 4. 아들의 부친 탐색

아들의 부친 탐색 신화소는 지상국에서 부인의 손에 의해 자라는 아들이 부친의 정체를 알아내려 하며 마침내 부친이 준 증거물을 가지고 부친을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화소는 유리태자가 고주몽을 찾아가는 신화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부친을 찾는 행위는 부계의 혈통을 증시하는 세계관과 그 당시 사회가 부계사회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양육은 모계에서 하고 신직을 받는 것은 부계 혈통인 것이다.

문창현 필사 <천지왕본>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을 양육하는 사람은 총명부인이고 옆에서 지도하는 인물은 박우왕으로 외할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이 나타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여성의 세계에서 보호를 받고 지내다가 아버지를 찾으려 남성의 세계로 옮겨지며 신직을 부여받고 새로운 임무를 추구하는 자리를 차지한다.

각씨 한 방울을 내여주어 두고 갖다 하고 청명 삼월에 각씨 한 방울을 심고, 또 천지 음양목을 옛돌 아래 심으니 음양목도 무성하고 각씨 종자도 무성하여 줄이 벗어 음양목에 올라가니 구월구일 아침에 외조부님이영 모친님이영 잘 사람십서. 부친 천지왕을 면대하래 가갓습니다. 총명어머니는 향나무빛 반쪽을 내여주명 말하되 이거는 너의 부친 본매다 실수업시 암전하개 면대하여 오라하니, 향나무빛 반쪽을 가지고 음양나무에 올라 축소를 고하니 하늘에서 노각줄을 나리와 주니 옥황오로 올라가 방문하되<sup>26)</sup>

박씨와 음양목을 심고서 이를 타고 하늘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박씨가 감긴 음양목 끝에 올라가 하늘에 축수해서 노각줄이 내려오는 것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민담에 흔히 나오는 화소와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땅에서 하늘로 부친을 찾으려 올라간 것은 천지를 다스릴 신격을 확인하고 천지를 나누어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6) 문창현, 『풍속무음』, pp285-287.



## 5. 해와 달의 조정

해와 달을 조정하는 신화소는 영웅적인 인물에게 부과되는 창세신화의 핵심적인 신화소이다. 제주도의 창세신화에 모든 편에서 등장한다.

정주병 구연<천지왕본풀이><sup>27)</sup>에서 신화소를 보면

인간데레 월광(月光) 둘이 비추고 일광(日光) 둘이 비추와 인간 백성(百姓) 살 수가 엇어지니 천근 활(千斤弓) 백근살(百斤矢)을 둘러받아 앞의 오는 햇님 하나 쟁겨근 뒤에 오는 햇님 하나 마쳐다가 동이와당 진도밭제 시겨두고, 앞의 오는 달(月) 하나 쟁겨 두고 뒤엿 달은 마쳐단 서이(西海) 와당 진도밭제 시겨든, 그 법으로 해(日)는 하나 동방으로 뜨오웁고 달은 하나 서방(西方)으로 지는 법, 법지법(法之法)을 마련허여 두고,

해와 달이 창세신화의 공통화소로 등장하는 것은 해와 달이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해가 들이면 너무 더워서 가뭄이 들고, 달이 들이면 너무 춥고 홍수가 날 수 있다. 해와 달을 활로 쏘아 조정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보호하려는 신들의 적극적인 행위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해와 달의 조정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 세오녀>나 <월명사의 도솔가>에서도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 6. 인세차지경쟁

대별왕과 소별왕이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신화소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인세차지경쟁을 위해 ‘꽃 피우기 경쟁’을 벌인다.

문창현 필사 <천지왕본>의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을 정리하면

- (1) (천지왕이) 녀들을 불러 대웅전에 가 ‘알기’라 한다.
- (2) 소별왕이 하늘나라 이고을 저고을 구경하고 가자고 제안한다.

27)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3) 대별왕이 부친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 (4) 이 문제를 두고 수수께끼를 벌인다.
- (5) 소별왕이 수수께끼에 이겨 극락계를 구경하고 대웅전에 간다.
- (6) 천지왕은 두 아들을 꾸중하고 대별왕에게는 ‘인간정치’를 소별왕에게는 ‘제향정치’를 하라고 명한다.
- (7) 소별왕이 천지왕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천지왕이 대웅전에 가 꽃사발을 나누어 주고 꽃피우기 시합을 제기한다.
- (8) 대웅전에 수보살더러 살피라 하고 꽃피우기 시합을 한다.
- (9)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극락세계 구경을 했으니 잠을 자자고 청한다.
- (10) 소별왕이 자신의 벌레 먹은 꽃사발과 대별왕의 열매 맺은 꽃사발을 바꾼다.
- (11) 소별왕이 이긴 것을 수보살이 천지왕께 고하니, 천지왕이 나와서 인간 정권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말하고 인간세상을 준다.

천지왕의 두 아들이 대웅전에 가서 알리라는 아버지의 명을 듣지 않았고 소별왕은 여기저기 구경을 가자고 제안한다. 수수께끼에 이긴 소별왕이 극락계를 구경하고 대웅전으로 간다. 대별왕에게는 인간정치를 소별왕에게는 제향정치를 맡기려하자 소별왕이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천지왕이 두 아들에게 꽃사발을 주면서 꽃 피우기 시합을 하라고 한다. 대별왕이 잠을 잔 사이에 소별왕이 꽃 사발을 바꿔서 소별왕이 이기고 인간 정권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말하고 소별왕에게 인간세상을 준다.

<천지왕본>에서는 미륵과 석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소별왕, 대별왕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토의 미륵과 석가라는 명칭이 소별왕 대별왕으로 변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인세차지경쟁에 앞서 수수께끼 대결을 한다. 수수께끼 대결은 지혜의 대결이며, 소별왕과 대별왕이 지혜를 대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소별왕이 대별왕을 수수께끼 대결에서 이긴 것은 소별왕의 지혜로움이 나타나며, 앞으로 다스릴 인간세상을 지혜를 가진 소



별왕이 차지한다는 예고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소별왕과 대별왕이 사발에 꽃을 피우는 능력을 보는 ‘꽃 피우기 경쟁’을 한다. 대별왕이 잠을 자면서 사발에 피운 꽃을 소별왕이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인간세상을 차지한다.

<창세가>에서도 ‘꽃 피우기 경쟁’을 통하여 속임수로 인간세상을 차지하는데 <천지왕본>에서도 같은 방법의 속임수로 인간세상을 차지한다. ‘꽃 피우기 경쟁’은 창세신화에 공통되는 핵심 신화소로 인간세상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꽃 피우기 경쟁’의 방법으로 잠자면서 꽃을 피우는 것이다. 왜 공통된 방법이 잠을 자면서 꽃을 피우는 것일까? 잠자는 동안 속임수가 행해지고 있다. 소별왕은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속임수를 썼고 승리했다. 소별왕이 인간세상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인간세상은 문제가 있고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은 신들의 세계에서 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일이고, 神만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꽃을 피울 수 있는 신이 인간세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인간세상은 생명이 탄생되고 성숙되고 보존되는 세계인 것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을 얻기 위해 소별왕은 속임수를 써서 차지한다. 저승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이다. 소별왕은 생명이 살아있는 이승을 다스리고 싶어 속임수를 쓴 것이다.

소별왕이 차지한 인간세계는 생명이 있고, 생명을 통해 에너지를 받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인간세계에 악이 있다하더라도 생명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인간세계가 더 매력적인 세계인 것이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겨서 인간세상을 차지하려는 의지가 ‘꽃 피우기 경쟁’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간세계는 생명을 통해 다시 생명이 탄생되는 창조적 세계이며, 생명이 소중한 의미를 지닌 세계라고 볼 수 있다.



### 2.1.2 일본의 창세신화

류구(琉球)는 본래 일본 땅이 아니라 독자적인 언어를 지닌 독립국이었다. 야마토(大和)인이 침범해서 지금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포함되어 그 문화적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sup>28)</sup> 류큐국은 동아시아 문명권에 속하면서도 조선 후기까지는 우리와 활발한 문화적 교섭을 벌였으며 우리나라가 류큐국 문화의 핵심적 전달자 역할을 했다.

한국과 琉球의 문명적인 동질성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구국에서 1458년에 만든 상왕조의 왕궁에 건 <萬國津梁鐘>의 銘文에 우리 나라에 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서 문명권적 내력이 깊고 오래되고 동질성이 훨씬 컸음을 알려준다.<sup>29)</sup>

한국과 琉球의 창세신화를 비교하면 여러 측면에서 일치하는 요소들을 볼 수 있다. 류큐의 창세신화에 미륵과 석가의 대결이 나타나는 것은 불교 문화의 전파과정에서 받은 영향이라 여겨진다.

琉球 지역에 전승되는 신화들은 특정한 사제자가 의례에서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전승되는 설화로 널리 존재하고 전승하면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琉球 지역에 전승되는 宮古島신화<sup>30)</sup>와 與論島<sup>31)</sup>에 전승되는 <불씨>신화를 중심으로 창세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 가. <宮古島神話>에 나타난 창세신화소를 정리하면

첫째, 미륵은 치카사야신의 일곱 형제신과 형제로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천

28)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pp491

29) 조동일, 금석문,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지식산업사, 1999, pp169-171.

30)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pp491-495.

31) 김현선,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



상에서 지상으로 내려보내어 인간을 길러 번식시키는 신이다.

둘째, 미륵은 천지 사이를 오르내리며 인간, 소, 산양, 돼지 등 살아 있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 보냈고 석가는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는 신으로 미륵과 달리 아름다운 남자 신이다.

셋째, 지상에 내려보내진 인간은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신체적 구조를 지녔으나 이를 미륵이 가능하게 했다.

넷째, 미륵이 만들어낸 미야코 섬을 석가가 다스리고 싶다하여 미륵과 석가 사이에 대결이 벌어진다.

다섯째, 미륵과 석가는 모란꽃 피우기 시합을 하는데, 석가가 미륵을 즐겁게 한후에 미륵의 꽃과 자신의 꽃을 바꾸어 이긴다.

여섯째, 미륵은 출자처인 당(唐)으로 꽃이랑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갔다.

<宮古島神話>를 인간세상 창조의 주체신화소와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창세가>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1. 인간세상 창조의 주체

<창세가>에서 미륵은 천지개벽의 주체이면서 구리기둥을 세워 천지를 갈라 놓았다. 해와 달이 둘씩인 것을 떼어내어 큰별과 남두칠성과 북두칠성을 만든 일원조정의 신이었다. 또한 인간창조는 미륵의 양손에 있는 금쟁반과 은쟁반에 하늘에서 떨어진 금벌레, 은벌레를 각각 축수하여 남녀가 되었다.

<宮古島神話>에서는 천지분리의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당(唐)에서 온 미륵이 치카사야의 일곱 신과 형제관계라고 했다. 미륵은 천지를 왕래하면서 생명체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일을 하고, 석가는 이것을 받는 일을 했다. 그것은 천상신과 지상신의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륵이 남녀 인간을 내려보내고 번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으로 보아 미륵을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륵이 식물의 씨앗을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으므로 인간세상



을 창조한 주체자라고 할 수 있다.

미륵이 하늘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행위는 인간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준비이며 석가가 지상에서 받는 행위는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신격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있다.

<宮古島神話>와 <창세가>에 나타난 공통은 인간을 창조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한 주체가 미륵이라는 점이다. <창세가>에서는 미륵 혼자 담당했지만, <宮古島神話>에서는 미륵이 주체가 되고 석가가 보조적 역할을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宮古島神話>에서 미륵과 석가가 서로 도와 인간세상을 다스릴 준비를 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세상은 하늘과 땅이 결합과 신들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인세차지경쟁

김쌍돌이가 구연한 <창세가>에서 미륵과 석가가 인세차지경쟁을 하기 위해 모란꽃 피우기 경쟁을 한다. <宮古島神話>에서도 모란꽃 피우기 경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세상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애쓴 미륵이 석가의 속임수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창세가>,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미륵과 석가가 대결할 때 잠을 자면서 꽃 피우기 내기를 하지만 <宮古島神話>에서는 미륵의 조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석가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란꼬치 모랑모랑 피여서,  
내 무렵헤 올라오면 내 歲月이오,  
너 무렵헤 올라오면 너 歲月이라.  
釋迦는 盜賊心事를 먹고 반잠 자고,  
미력님은 찬잠을 잤다.  
미력님은 무렵우에,



모란꼬치 피여 올낫소아,  
釋迦가 中等사리로 격거다가,  
저 무렵해 꼬졌다.

- <김쌍돌이본>

그래서 미륵은 들어서 꽃피우기를 하여 승부를 결정하기로 제안했다. 모란  
꽃을 각각 가지고 와서 꽃을 피우게 하여 승부를 결정하기로 되었는데 미륵에  
게는 조는 버릇이 있었다. 석가는 지혜가 있어서 미륵을 졸게 한 다음 그 순간  
에 피지 않은 자신의 꽃을 피어 있는 미륵을 졸게 한 다음 그 순간에 피지 않  
은 자신의 꽃을 피어 있는 미륵의 꽃과 바꾸었다.

- <宮古島神話>

중요한 시험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신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  
며 프로프의 《민담의 역사적 기원》에 잘 표현되어 있다.

나는 그것들(구슬리들)을 다 준비해놓았어. 네가 원한다면 선물로 주지. 하  
지만 내가 그것들을 줄 때, 아무도 잠들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으로야!<sup>32)</sup>

잠의 시험이 결코 공연한 것이 아님을 「길가메쉬」 서사시에도 분명히 나타  
난다. 주인공 길가메쉬는 불멸(우리의 이야기에서, 살아 있는 물과 유사하다)을  
얻기 위해 우트나피쉬팀 Ut-Napishtim을 찾아간다. 우트나피쉬팀은 이야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시험자이며 증여자이다. 그는 주인공에게 엿새 낮 이  
레 밤을 계속 깨어 있을 것을 종용한다. 하지만, 긴 여정에 지친 길가메쉬는  
잠이 들고 만다. 우트나피쉬팀의 아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 깨운다. 그레스만  
Gressmann은 덧붙여 이렇게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남편이 그녀에게 길가메  
쉬를 위해, 아마도 여행을 위해, 빵을 구우라고 한다. 그리고는 마술적 힘이 들

32) 프로프, 최애리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0, p.115



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빵을 굽는 것과 관련된 신비한 장면이 뒤따른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의 왕국 입구에서 먹게 되는 음식에 어떤 힘이 들어 있는가를 안다. 요점만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들은 잠의 금지가 야가라는 인물과 역할에 완전히 일치함을 보여준다. (중략) 삼터는 출생·죽음·결혼 등의 경우에 자는 것의 금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것은 자는 것의 금지와 죽음 및 출생의 영역 즉 입문 제의의 기초 그 자체인 영역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sup>33)</sup>

미륵이 인간세상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나, 신화적 금기인 잠을 이기지 못하여 석가에게 인간세상을 내어 주게 되었다. 인간세상은 생명이 있는 세계이므로 인간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생명을 지켜야 한다.

<창세가>, <宮古島神話>에서 모란꽃 피우기 경쟁을 하는 공통점이 보인다. 꽃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번식하는 과정을 거친다. 생명의 창조는 신(神)만 할 수 있는 범주이다.

<창세가>에서는 패배한 미륵이 도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宮古島神話>에서는 자신이 가져온 꽃과 모든 것을 가지고 唐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별 도리없이 당으로 가게 되었다. 미륵은 당에는 아무 것도 없었기에 미야코에서 꽃이랑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당을 번성시켰다.

- <宮古島신화>

#### 나. 輿論島에 전승되는 <불씨>와 <미륵과 석가> 신화소를 살펴보면

輿論島에 전승되는 미륵과 석가의 대결 신화가 여러 편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 중 불씨를 찾는 과정과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이 나타나 있는 <불씨>신화를 살펴보고, <미륵과 석가> 신화 몇 편을 더 살펴보고자 한다.

33) 프로프, 최애리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0, p.117.



옛날 미륵불과 석가불이 세상을 빼앗는 싸움을 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륵불이 말했다. “잠잘 때, 베갯맡에 꽃병을 두고, 꽃병에 꽃이 빨리 피는 쪽이 자기 세상을 삼자.”고 해서 두 부처가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꽃병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다. 한 밤중에 석가가 눈을 떠보니 자기 머리맡에 있는 꽃병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미륵의 꽃병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 만발했다. 석가는 몰래 꽃이 피지 않은 자기 꽃병을 아름답게 피어 있는 미륵의 꽃병과 바꿔치기 했다. 그래서 약속대로 마침내 석가 세상이 되었다. 석가에게 세상을 빼앗긴 미륵은 하는 수 없이 인류, 짐승류, 곤충류 등에 이르기까지 만물에게 눈을 감게 하고 ‘불씨’를 숨기고 용궁으로 가버렸다. 그러자 세상이 불이 없어져서 석가는 무척 난처해졌다. 석가는 인류, 곤충류, 조류, 짐승류 등의 살아 있는 생물을 모두 모아놓고 미륵이 불씨를 숨긴 데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 눈을 감고 있어서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메뚜기가 나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고 대답했다. 석가는 빨리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메뚜기는 “저는 날개로 눈을 덮고 있었으나, 제 눈은 겨드랑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이 돌과 나무로 불씨를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석가는 매우 기뻐하고 나무와 나무를 문질러서 불씨를 만들고, 돌과 돌을 부딪혀서 불씨를 만들 수 있었다. 석가는 메뚜기에게 “잘봤다. 그 대가로 한 말해 둘 것이 있다. 네가 죽을 때는 땅 위에서 죽고, 개미 등이 먹지 않게 하겠다. 나무껍질인 풀잎 위에서 죽어라.”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도둑이 나오거나 한 것은 석가가 미륵의 아름다운 꽃병을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륵은 정직했기 때문에 즐겁게 살았다고 한다. 34)

### 1. 인세차지경쟁 신화소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는 輿論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몽고, 중앙아시아 등지에 널리 전승되고 있는 신화이다. 미륵과 석가가 다툼을 통해 세상

34) 복전(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연구)





을 빼앗는 이야기로서 잠잘 때 꽃을 꽃병에 피우는 것으로 정해 석가가 자기 것은 피지 않아서 몰래 미륵의 것과 바꿔치기 하여 약속대로 석가의 세상이 되었다.

잠을 자면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神만이 할 수 있는 경지이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인간 세계에 대한 의식이 약화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잠으로 인하여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미륵이 잠을 잔 틈을 타서 석가가 몰래 피지 않은 꽃을 바꾼 것이다. 석가가 몰래 속임수로 차지한 세상은 정상적인 세계가 아닌 불완전한 세상이 된 것이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생명을 관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인간 세계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아름다움이 있으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긴 인간세상을 미륵은 그냥 물러나지 않고 응징을 한다.

<창세가>에서도 악이 만연 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미륵이 예견하고 있다.

너 歲月이 될나치면,  
家門마다 妓生나고,  
家門마다 寡婦나고,  
家門마다 무당나고,  
家門마다 逆賊나고,  
家門마다 白丁나고,  
너 歲月이 될나치면,  
합들이 치들이 나고,  
너 歲月이 될나치면,  
三千중에 一天居士 나너니라.  
歲月이 그런즉 未來가 된다.

- 김쌍돌이본 <창세가>



## 2. 석가의 불씨 찾기

<불씨>에서 미륵은 인간 세상에 필요한 불씨를 감추어 버린다. 불씨는 인간에게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불씨를 감추어 버린다는 것은 인간에게 많은 혼란과 응징을 표현한 것이다.

미륵의 응징으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 감춰버린 불씨를 석가는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찾는다. 미륵은 세상의 살아있는 모든 것의 눈을 감게 하고 불씨를 감추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도 석가가 찾아내기 힘들었다. 석가가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미륵을 속였지만, 석가가 인간을 위해 불을 찾아주는 노력을 통해 석가의 인간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고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신으로서의 면모가 보여진다.

그러나 메뚜기의 특별한 신체적 구조 덕분에 날개를 눈으로 가렸으나 눈이 밑에 있어서 미륵이 불을 감추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추어진 불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미륵이 불씨를 돌과 나무에 감추었다고 했다. 돌과 나무를 부딪히는 충격에 인해 불이 나오게 되었다는 불의 근원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메뚜기에 의해 인간의 문화적 행위는 계속될 수 있게 된다. 불씨의 비밀을 알아낸 메뚜기는 그 공로로 다른 곤충에게 먹히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된다.

석가가 불씨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모습이다. 석가가 불씨를 인간세상에 다시 찾아주는 행위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신의 노력이며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볼 수 있다. 석가가 불씨는 다시 찾았으나 인간 세상에 만연된 악은 그대로 남게 되고,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의 잘못이 아닌 신의 속임수에 있었던 것이다.

미륵과 석가의 대결이 ‘꽃 피우기 경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신화들 속에서 <미륵과 석가>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이되어 전승되고 있다.

(1)옛날,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불이 꺼지면 그 사람에게 불



씨를 받으러 갔는데, 뭔가 가져가지 않으면 불씨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등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불을 피우는 것을 알았다. 등의 눈이 몸통에 있는 것을 이용했다.

(2) 미륵과 석가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있고, 석가가 미륵의 부유한 땅을 시기해서 많은 쥐를 미륵의 땅에 풀어놓자, 미륵은 고양이를 키워서 쥐를 잡게 했으며, 석가는 쥐처럼 얼굴이 야위고, 미륵은 살찐다는 내용이다.

땅을 나눌 때 욕심 많은 석가는 보이는 땅은 전부 자기 것이라고 해서, 미륵은 보이지 않는 땅은 자기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나누고 보니 석가의 땅은 황폐하여 농작물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미륵의 땅은 비옥하여 풍작이었다. 석가는 미륵을 미워하여 수많은 쥐를 미륵의 땅에 풀어 놓아서 미륵은 고양이를 길러 쥐를 잡게 했다. 석가는 쥐처럼 얼굴이 말랐고, 미륵은 살이 찌서 유복한 모습이다.

(3)미륵이 부자가 되자, 게으른 석가가 모든 동물의 눈을 가리고 불씨를 숨긴다. 이에 메뚜기와 매미가 나무와 돌에 불씨를 숨긴 사실을 알려준다 이후에 미륵은 석가에게 괴롭힘만 당하자 배를 타고 먼 섬으로 가서 그곳을 번영시켰다. 그러자 석가의 섬사람이 미륵의 섬사람을 살피러가자, 그곳 사람들이 “미륵님으로부터 남의 밭을 한 평 뺏으면 10평 손해, 돈 10관을 뺏으면 천관 손해”라고 배워서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싸운다는 내용이다.

부지런한 미륵이 부자가 되자 이를 질투한 게으른 석가가 동물에게 눈을 감게 하고 불을 숨겼다. 그 때 동물은 말을 할 수 있어서, 미륵이 동물들에게 물으니 겨드랑이 아래 눈이 있는 매미와 메뚜기가 불은 나무와 돌에 숨겼다고 답했다. 그래서 미륵이 돌을 부딪쳐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작아서 이번엔 나무막대기로 세계 비벼서 불을 얻었다. 미륵은 석가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배에 돈과 보리를 싣고 먼 섬으로 도망가서 그 섬에서 다시 번영을 누렸다. 그 소



식을 들은 석가의 섬에 사는 사람이 미륵의 섬을 살피러 갔는데, 농민이 밭의 경계를 두고 “미륵님께서 ‘남의 밭을 한 평 빼앗으면 열 평의 손해, 돈 10貫을 빼앗으면 천 관의 손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자네가 더 갖게”라며 서로 양보하느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석가의 섬 사람은 놀라서 돌아오고 말았다.

<미륵과 석가> 신화는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꽃 피우기 경쟁을 하지는 않지만, 석가와 미륵이 서로 경쟁하여 영토를 차지하고 다스리기 위한 다툼으로 볼 수 있다. <미륵과 석가> 신화는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창세신화의 다른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미륵과 석가> 신화소는 창세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훼손되고 농경과 토지의 갈등으로 변형되었으며, 미륵과 석가의 대결이 인간의 선악보다는 농사의 흥풍과 더 관련이 있다. 미륵과 석가의 대결 모습이 변이 된 것은 사회의 문화와 풍토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 2.2. 한국 <창세신화>의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신들의 경쟁과 다툼이 꽃피우기 경쟁 신화소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본토 <창세가>와 제주도 <천지왕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하고 변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김쌍돌이본>의 창세가 중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를 살펴보면

- (1) 미륵님 세월은 태평했다.
- (2) 석가님이 내려와서 미륵님의 세월을 빼앗고자 했다.
- (3) 미륵님이 내기를 제안했다.
- (4) 동해 중에 병에 줄을 달고 끊어지지 않는 신이 이기는 것으로 했는데, 미륵이 이겼다.
- (5) 다시 석가가 내기 시합을 제안했다.



- (6) 성천강 여름에 강을 얼리기로 했는데, 미륵이 이겼다.
- (7) 다시 석가가 내기 시합을 제안했다.
- (8) 한 방에 누워서 잠을 자며 각기 모란꽃을 피우기로 했다.
- (9) 석가가 도심(盜心)을 먹고 미륵의 무릎에 핀 모란꽃을 꺾어다가 자기 무릎에 꽂아 이겼다.
- (10) 미륵이 석가에게 세월을 넘겨 준다.
- (11) 미륵이 석가 세월의 혼돈을 예언한다.

미륵은 세상을 창조한 창세신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나 석가의 속임수로 인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뀐 것이다. 부정적인 방법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 통치권은 석가가 차지했지만 결국 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혼돈과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

첫째 대결은 동해 중에 금병에 금줄을 달고 은병에 은줄을 달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신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대결은 미륵의 승리로 귀결된다.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가운데를 의미하고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늘은 생명을 다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땅은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열매 맺고 번성하는 곳이다. 미륵의 줄은 공중에 그대로 매달려 있고 석가의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미륵이 저승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석가가 이승을 차지한다는 예고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무속 중에 무녀가 굿을 하면서 병으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건지는 의식<sup>35)</sup>이 있다. 병 속으로 죽은 혼이 들어온다고 생각한 것이다. 미륵의 금병이 끊어지지 않고 금줄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저승의 영혼을 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결은 성천강을 붙이는 것으로 미륵은 冬至채를 석가는 立春채로 강을 붙였다. 미륵과 석가의 자연 기후 조절에 대한 시합으로 신적인 능력을 경

35)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p106.



쟁하는 것이다.

미륵은 성천강을 열려서 붙이고, 석가는 성천강을 녹여서 붙이려 했다. 이 내기에서도 미륵이 이겼지만, 석가의 능력은 농경사회와 관련이 있다.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농업용수로 쓸 수 있고, 재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강물이 얼었다는 것은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고 수렵과 자연채취가 가능한 모습이다.<sup>36)</sup> 주술적 권능이 약한 석가가 내기에서 졌지만 이미 석가의 시대가 올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미륵이 만든 우주는 변화 발전한다. 인간의 생활모습도 기후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내기에서는 졌지만 석가의 능력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부합된다.

셋째 대결은 미륵의 패배이다. 석가와 미륵의 대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 방에 누워서 잠을 자며 각기 모란꽃을 피우기 내기이다. 인세차지경쟁의 핵심 신화소이다. 미륵과 석가가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경쟁이다. 미륵과 석가가 잠을 자면서 꽃을 피우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잠을 잔다는 것은 의식이 있던 활동을 멈추고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어둠의 시간이다. 무의식의 세계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창조적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으며, 의식의 저편에 있는 세계이다. 미륵이 잠을 잔 것은 에너지를 비축하여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석가는 잠을 자고 꽃을 피운 것이 아닌 미륵의 무릎에 핀 꽃을 몰래 꺾어 자기 무릎에 놓는 거짓 행위를 한다. 미륵의 무릎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무릎이 꽃으로 변화된다는 의미도 생각할 수 있다. 종자가 변화를 거쳐야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이치와도 흡사하다. 반고 신화에서 몸의 일부분이 우주 만물로 변화되는 것과도 같다. 미륵의 몸에서 핀 꽃을 석가가 자신의 무릎으로 옮겨온다. 생명을 지니고 있는 꽃을 자기의 무릎으로 옮겨온 것은 생명의 세계를 가져온 것이다. 석가가 속임수로 이승의 생명을 지키고 다스리는 주인이 된 것이다. 석가의 속임수로 인간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악의 기원을 보여주고

36)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p106.



있다. 우주의 혼돈이 미륵에 의해 정리되자 석가의 속임수로 다시 인간에게 혼돈이 생겨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명수본>에서 창세가 중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를 살펴보면

- (1) 미륵님이 이 세상을 태평하게 다스리고 있었다.
- (2) 서가열새존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당네가 되었다고 한다.
- (3) 미륵님과 서가열새존님이 내기를 한다.
  - ① 술병을 깨어 술이 공중에 떠 있게 한다. 미륵이 이겼다.
  - ② 낮가리로 달걀 가리기 미륵이 이겼다.
  - ③ 잠자기 내기이다. 서가열새존님이 미륵님 무릎의 꽃을 훔쳐서 이긴다.
- (4) 서가열새존님이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 (5)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온갖 악이 만연하게 될 것을 미륵이 예언한다.

<강춘옥본>에서 창세가 중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를 살펴보면

- (1) 미륵뎡서인님이 조선국의 주인이 되었다.
- (2) 석가님이 불교를 펴고자 했다.
- (3) 미륵뎡서인님이 내기를 제안하고, 석가님이 이에 동조한다.
  - ① 신선장기: 신선바둑 석가님이 이겼다.
  - ② 배선유승전법으로 석가님이 이겼다.
  - ③ 신선잠자기로 미륵뎡님의 꽃을 꺾어 와서 석가님이 이겼다.
- (4) 석가님이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 (5) 미륵뎡님이 이 세상의 악과 혼돈을 예언한다.

<정운학본>에서 창세가 중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를 살펴보면

- (1) 미륵님이 이 세월을 다스리고 있었다.
- (2) 석가열이가 미륵님을 찾아왔다.



- (3) 석가열이가 미력님에게 ‘세상 배포’를 다스리기 위해 잠자며 꽃피우기 내기를 제안, 미력님의 무릎에 핀 꽃을 가져와 내기에 이긴다.
- (4) 석가열이가 이 세상 배포를 차지한다.
- (5) 미력님이 이 세상의 혼란을 예언한다.
- (6) 미력님이 해, 달과 水火를 가지고 가 버린다.

<김쌍돌이본>, <전명수본>, <강춘옥본>, <정운학본>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은 미륵과 석가가 다툼을 했고, 미륵은 창세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륵과 석가의 경쟁은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부정적인 인물인 석가가 ‘꽃 피우기 경쟁’에서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세상을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었고, 그 결과 세상은 악이 만연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구전되고 있는 문창헌 필사 <천지왕본>에서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대별왕과 소별왕이 다툼을 벌이는 창세신화소이다.

문창헌 필사 <천지왕본>의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을 정리하면

- (1) (천지왕이) 녀들을 불러 대웅전에 가 ‘알기’라 한다.
- (2) 소별왕이 하늘나라 이고을 저고을 구경하고 가자고 제안한다.
- (3) 대별왕이 부친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 (4) 이 문제를 두고 수수께끼를 벌인다.
- (5) 소별왕이 수수께끼에 이겨 극락계를 구경하고 대웅전에 간다.
- (6) 천지왕은 두 아들을 꾸중하고 대별왕에게는 ‘인간정치’를 소별왕에게는 ‘제향정치’를 하라고 명한다.
- (7) 소별왕이 천지왕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천지왕이 대웅전에 가 꽃사발을 나누어 주고 꽃피우기 시합을 제기한다.
- (8) 대웅전에 수보살더러 살피라 하고 꽃피우기 시합을 한다.
- (9)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극락세계 구경을 했으니 잠을 자자고 청한다.





- (10) 소별왕이 자신의 벌레 먹은 꽃사발과 대별왕의 열매 맺은 꽃사발을 바꾼다.
- (11) 소별왕이 이긴 것을 수보살이 천지왕께 고하니, 천지왕이 나와서 인간정권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말하고 인간세상을 준다.

정주병 구연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을 정리하면

- (1)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는 범지법을 마련하기로 한다.
- (2) 대별왕과 소별왕이 내기를 한다.
- (3) 대별왕이 수수께끼를 제안해서, 소별왕이 답변하자, 대별왕이 반문하여 이긴다.
- (4) 소별왕이 지부왕에게 꽃씨를 받아다가 꽃피우기 시험을 했는데, 대별왕의 꽃이 번성하여 이긴다.
- (5) 소별왕과 대별왕이 잠 오래 자기 시험을 해서, 꽃을 바꿔치기 한 소별왕이 이긴다.
- (6) 대별왕이 이승의 법이 공정하지 못할 것을 예언한다.

<천지왕본>에서는 미륵과 석가라는 신격은 등장하지 않고, 대별왕, 소별왕으로 명칭이 변이되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인간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꽃 피우기 경쟁’을 한다. 벌레 먹은 꽃을 피운 소별왕은 대별왕이 피운 꽃을 속임수로 바꿔치기 하여 인간세상을 다스린다.

<천지왕본>, <천지왕본풀이>에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에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잠을 자면서 꽃 피우기를 하는 것이다. 눈을 뜨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면서 생명을 피우는 것이다. 잠을 자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은 신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잠은 많은 생명의 탄생을 잉태하고 있는 시간이라 볼 수 있다.

인세차지경쟁 신화소가 <창세가>와 <천지왕본>에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



의 모습으로 공통되게 나타난다. ‘꽃 피우기 경쟁’이 정상적인 경쟁이 아닌 속임수를 사용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속임수가 인간 세상에 악을 심어주게 되고,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악의 기원까지 알려주고 있다.

신들은 왜, 이승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일까? 신들이 속임수를 써서라도 ‘꽃 피우기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것은 이승에 있는 생명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싶어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인간세상은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생명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소별왕이 다스리고 싶어 하는 세상은 생명력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세상이다.

악이 인간세계에 있다하더라도 생명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세계가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는 더 매력적인 세계일 수 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겨서 인간세상을 차지하려는 신의 인간 사랑에 대한 의지가 ‘꽃 피우기 경쟁’의 의의라고 생각한다.

제주도 지역에 구송되는 <삼승할망본풀이> 창세신화는 아니지만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나온다.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나오는 <삼승할망본풀이>는 생명 수호의 신화이다. 명진국 따님애기와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천지창조의 주체는 아니지만 꽃 피우기 경쟁을 통하여 생불왕이 되려는 노력이며, 신화소의 변이로도 볼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 신화소의 핵심은 ‘꽃 피우기 경쟁’이다. 꽃피우기 경쟁의 승리자가 이 세상을 차지하고 이 세상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불왕이 되는 경쟁이다. 명진국 따님애기가 꽃피우기 경쟁에서 승리하여 이승의 생명을 관장하고 생명을 키우고 낳는 신이 되었으며,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저승에 관여하는 신이 되었다.

“너이덜 얼굴 보는 디는 어느 누게 구별홀 수 엇어지고 생불환생 주는 디도 어느 누게 구별홀 수 엇어진다. 천계왕을 불르라 벽계왕을 불르라 꽃씨 두 방울을 내여 주건 서천서약국 계모살왓디 꽃씨 두 방울을 싱경 꽃번성 흐는대로 생불왕을 구별호리라”



계모살앗디 꽃씨를 드렸더니 고장 번서흐는 것이 동해용궁 따님애기 꽃은 보난 불리도 웨불리 가지도 웨가지 송애도 웨송애 금뉴울꽃 웨고 멩진국 꽃은 보난 불리는 웨블리요 가지 송앤 스만 오천 육백 가지 번성웨난 옥황상저이 꽃빈장을 가니 옥황사저이 말을 흐웨

“동해용궁 꽃은 보난 금뉴울 꽃이 되니 저승할망으로 들어사곡 멩진국 꽃은 보난 번성꽃이 웨니 인간할망으로 들어사라”<sup>37)</sup>

꽃은 생명을 상징한다. 씨앗이 뿌려지고 여러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햇빛과 물, 온도 등 여러 가지 자연의 도움을 받아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다른 신화소에서는 꽃피우기 경쟁에서 속임수로 상대방을 이긴다. 그러나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속임수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태어나는 생명을 관장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기에 속임수로 생명을 차지하게 된다면 인간 세상에 큰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이로 여겨진다.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꽃을 피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꽃의 뿌리가 하나이고 가지도 하나이고 순도 하나가 돋은 곳에서 꽃이 겨우 피었으며, 멩진국 따님애기는 뿌리는 하나이지만 가지가 크게 번성하여 훨씬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생불왕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번성하게 하는 신의 모습으로 많은 꽃을 피우고, 더 많은 생명력을 지속시키고 번성시켜야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삼승할망의 임무는 이승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번성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창세가>, <천지왕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화소는 인세차지경쟁으로 생명이 있는 이승을 맡으려는 신들의 노력이 들어 있는 신화소라 할 수 있다. <창세가>,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인세차지경쟁을 위하여 신들의 다툼과 속임수를 볼 수 있으나,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속임수를 쓰지 않고 꽃을 많이 번성하게 하는 신이 이승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번

3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108-116.



성하게 하는 강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2.3. 일본 琉球 <창세신화>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

琉球 지역에 전승되는 창세신화로 宮古島에 전승되는 <宮古島神話>와 與論島에 전승되는 <불씨>의 핵심 신화소인 ‘꽃 피우기 경쟁’을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의 창세신화인 <창세가>, <베포도업침> 등은 천지창조와 관련이 있는 신화이다. 그러나 琉球 지역에 전승되는 창세신화는 그러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창세신화의 핵심 신화소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공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창세신이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꽃 피우기 경쟁’을 하는 것이다.

<宮古島神話>에서는 모란꽃을 피우는 경쟁을 한다. 인간세상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애쓴 미륵이 석가의 속임수로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세가>,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미륵과 석가가 대결할 때 잠을 자면서 꽃 피우기 내기를 하지만 <宮古島神話>에서는 미륵의 조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석가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미륵은 둘이서 꽃피우기를 하여 승부를 결정하기로 제안했다. 모란꽃을 각각 가지고 와서 꽃을 피우게 하여 승부를 결정하기로 되었는데 미륵에게는 조는 버릇이 있었다. 석가는 지혜가 있어서 미륵을 졸게 한 다음 그 순간에 피지 않은 자신의 꽃을 피어 있는 미륵의 꽃과 바꾸었다.

- <宮古島神話>

미륵은 조는 버릇 때문에 석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인간세상을 석가에게 넘겨준다. 인간세상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세상을 다스릴 신이 모란꽃을 피워 놓고도 인간세상을 석가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중요한 경쟁에서 잠을 자는 행



위는 신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프로프의 《민담의 역사적 기원》에 잘 표현되어 있다.<sup>38)</sup>

신들이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로 ‘꽃 피우기 경쟁’을 선택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생명을 탄생하게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신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신적인 능력이 충만한 미륵이 세상을 차지한 것이 아닌 신적인 능력이 낮은 석가가 속임수를 써서 세상을 차지하여 세상이 악이 만연하고 불완전한 세상이 된 것이다.

與論島의 <불씨>에서도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등장한다.

“잠잘 때, 베갯맡에 꽃병을 두고, 꽃병에 꽃이 빨리 피는 쪽이 자기 세상을 삼자.”고 해서 두 부처가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꽃병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다. 한 밤중에 석가가 눈을 떠보니 자기 머리맡에 있는 꽃병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미륵의 꽃병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 만발했다. 석가는 몰래 꽃이 피지 않은 자기 꽃병을 아름답게 피어 있는 미륵의 꽃병과 바꿔치기 했다. 그래서 약속대로 마침내 석가 세상이 되었다.

- <불씨>

잠을 자면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神만이 할 수 있는 경지이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인간 세계에 대한 의식이 약화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잠으로 인하여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미륵이 잠을 잔 틈을 타서 석가가 몰래 피지 않은 꽃을 바꾼 것이다. 석가가 몰래 속임수로 차지한 세상은 정상적인 세계가 아닌 불완전한 세상이 된 것이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 세계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아름다움이 있으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인간세계를 신들은 지켜야 하며 경쟁을 통해서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

38) 프로프, 최애리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0, p.115



다. 만발하게 피어있는 꽃을 석가가 속임수를 써서 빼앗은 것은 인간 세상에 속임수와 악이 전해진 것이다.

‘꽃 피우기 경쟁’을 통해 인간세상을 차지하려는 신들의 노력은 치열하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신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인간이 신성하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2.4. 우리나라와 오키나와 신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나라의 창세신화와 琉球 지역의 창세신화는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琉球 지역은 동아시아 문명권에 속하면서도 조선후기까지는 우리와 문화적 교섭이 활발했고, 우리나라가 琉球 지역에 문화를 많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의 전수로 인한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본토의 창세신화로 김쌍돌이가 구연한 <창세가>와 제주도 지역의 창세신화인 문창헌 필사 <천지왕본>에서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의 핵심신화소로 ‘꽃 피우기 경쟁’이 나오며, 琉球 지역의 <宮古島神話>와 與論島에 전승되는 <불씨>에서도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로 ‘꽃 피우기 경쟁’이 나타난다.

또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석가의 잠과 관련 있는 속임수로 인간세상을 차지하게 된 계기와 인간세상이 악이 만연하게 된다는 예언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의 명칭도 <창세가>에서는 미륵과 석가로 나타나고 <宮古島神話>와 與論島의 <불씨>에서도 미륵과 석가로 나타난다. 동아시아 일대 불교전승의 영향이라 여겨진다.

우리나라와 琉球 지역의 창세신화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창세신화는 사제자인 무당이 신의 내력을 노래하고, 신을 위해 신옷을 입고, 신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사를 차리고, 신의 모습으로 춤을 추기도 하면서 구송된다.<sup>39)</sup> 또한 우리나라의 창세신화는 문헌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화가 아



닌, 무당이 구전으로 제자에게 이어지면서 내려오는 살아 있는 신화인 것이다.

琉球 지역에 전승되는 신화들은 특정한 사제자가 의례에서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전승되는 설화로 널리 존재하고 전승하면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 본토의 북부지역 <창세가>의 신화소로 천지개벽, 창세신의 거신적 면모, 물과 불의 근본, 인간창조, 인세차지경쟁, 일월조정 신화소가 있고, 제주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천지왕본>을 중심으로 신화소로 천지개벽, 수명장자정치,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 아들의 부친탐색, 해와 달의 조정, 인세차지경쟁 신화소가 있다. 琉球 지역 미야코에 전승되는 <宮古島神話>와 與論島の <불씨>신화에서는 천지개벽과 함께 존재하는 창세신의 면모는 없고,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와 불씨를 찾는 과정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39)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17.



### Ⅲ.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의 동아시아적 확대 가능성

한국과 몽골은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친연성이 있고, 고대에 한반도로 이주한 집단이 몽골의 거주지였던 동북아시아라는 점에서 한민족의 형성과정이나 민족국가의 건립과 발전 과정에서도 두 민족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40)</sup>

몽골의 창세신화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부리아트족의 창세신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 3.2. 부리아트족의 창세신화

옛날에 대지(즉 땅)라는 것은 없고 전체가 대수(大水)로 덮이고 있었다. 석가모니 보르항(=석가모니불), 마이다르 보르항(=미륵불), 에세게 보르항 셋이서 합의하여 세상을 만들기로 하고 물 위를 가고 있었다. 그 때 마침 앙가트라는 새가 새끼 12마리를 데리고 물위로 떠가고 있었다.

“너 말이야, 물 밑바닥에 들어가 그 곳에서 검정색, 빨강색 흙과 모래를 가져다 다오!”

라고 하였다. 앙가트라는 새는 세 보르항의 말에 따라 물 밑바닥으로 잠수해 들어가 검정색 흙, 빨강색 흙과 모래를 날라다 주었다. 그리하여 세 보르항은 앙가트 새가 가져다 준 흙과 모래를 물 위에 뿌려서 땅을 만들고, 그 곳에 나무와 식물이 자라나게 하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의 몸은 빨강색 진흙으로, 뼈는 하얀색 돌로, 피는 물(水)로 만들었다. 이런식으로 세 보르항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두 사

40)노로보남, 「한국과 몽골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p1.





람에게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고, 누가 이들을 보살필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세 보르항( 석가모니 보르항, 마이다르 보르항, 에세게 보르항)은 각각 자기 앞에 그릇을 놓아 두고, 누구의 그릇에서 빛이 발(發)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앞에 있는 그릇에서 빛이 발하는 보르항이 앞으로 사람을 보살피기로 결정하고 모두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석가모니 보르항이 맨 먼저 일어나 그릇을 살펴보았다. 그 때 마이다르 보르항(미륵불) 앞에 놓인 그릇에서 빛이 발하고 꽃이 피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석가모니 보르항은 마이다르 보르항 앞에 있는 그릇을 자기 앞에 있는 그릇과 바꾸어 놓고서는 다시 누워 잠을 잤다. 세 명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그릇을 살펴보았다. 당연히 석가모니 보르항 앞에 있는 그릇에서 꽃이 피어나고 빛이 발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여 석가모니 보르항이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이다르 보르항은 석가모니 보르항이 속임수를 써서 꽃이 피고 빛을 발하는 자기 앞의 그릇과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르기를,

“ 네가 나를 교활하게 속였기 때문에 네가 보살필 사람들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후 마이다르 보르항과 에세게 보르항은 하늘로 가고, 석가모니 보르항은 자기들이 만든 두 사람과 함께 지상(地上)에 남게 되었다. 한편 보르항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추위에 떨지 말고 얼지 말라고 털을 주었다. 그러나 개는 만들 때부터 털거숭이로 두었다. 석가모니 보르항은 두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개에게 그들을 지키도록 명하고 하늘로 갔다. 그 사이에 악마가 나타났다. 개는 석가모니 보르항이 시킨대로 으르렁거리고 짖어대면서 악마가 잠자고 있는 사람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악마가 말하기를,

“너 말이야, 제발 나에게 으르렁거리지 마라.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먹을 것을 주마. 그리고 사람처럼 털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너는 춥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개는 악마의 말을 듣고 으르렁대기를 그만두었다. 그러자 악마는 개에게 먹을 것을 주고 털도 자라게 해주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개의털



을 불결하다고들 한다. 악마는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사방에서 침을 뱉고 가버렸다. 석가모니 보르항이 하늘에서 내려와 악마에게 해(害)를 당한 사람들과 털이 나있는 개를 보고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개에게 이르기를, “앞으로 너는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리라! 뼈나 씹어 먹고 추위에 떨면서 사람이 세수하고 남은 더러운 물이나 핏고, 사람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지내리라!”

라고 하였다. 그 후 석가모니 보르항은 사람의 더럽혀진 털을 뽑아 정화(淨化)하고, 단지 머리와 여타 다른 곳의 깨끗한 털만 남겨 놓았다고 한다. 사람이 잠자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털은 악마의 침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사람들은 몸에 털이 없는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한다. 41) 핵심 신화소를 살펴보면

- (1) 태초에 이 세상에는 물 뿐이었다.
- (2) 석가모니와 마이다르, 그리고 에세게 보르항 셋이 앙가트 새를 시켜서 땅을 만든다.
- (3) 앙가트 새가 가져 온 흙으로 남녀 두 사람을 만든다.
- (4) 인세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경쟁에서 석가모니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이긴다.
- (5) 악마가 더럽힌 사람을 창조주가 재정리하고 사람과 개의 관계를 정해 준다.

### 1. 창세과정

창세과정은 창세신화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신화소이다. 한국의 창세신화의 천지개벽 신화소와 부리아트족의 창세과정의 신화소를 비교 검토 하겠다.

옛날에 대지(즉 땅)라는 것은 없고 전체가 대수(大水)로 덮이고 있었다. 석가모니 보르항(=석가모니불), 마이다르 보르항(=미륵불), 에세게 보르항 셋이

---

41) 박시인, 『알타이 신화』, 청노루, 1994, pp.



서 합의하여 세상을 만들기로 하고 물 위를 가고 있었다. 그 때 마침 앙가트라라는 새가 새끼 12마리를 데리고 물위로 떠가고 있었다.

“너 말이야, 물 밑바닥에 들어가 그 곳에서 검정색, 빨강색 흙과 모래를 가져다 다오!”

라고 하였다. 앙가트라라는 새는 세 보르항의 말에 따라 물 밑바닥으로 잠수해 들어가 검정색 흙, 빨강색 흙과 모래를 날라다 주었다. 그리하여 세 보르항은 앙가트라 새가 가져다 준 흙과 모래를 물 위에 뿌려서 땅을 만들고, 그 곳에 나무와 식물이 자라나게 하였다고 한다.

- <부리야트족 창세신화>

태초에 무한한 물 뿐이었고 창조신들이 나타나 세상을 만들었다. 혼돈에서 우주가 형성된 모습을 나타내며, 창세신은 둘 혹은 셋의 창조주로 나타나고 물 밑바닥에서 한줌의 흙을 가져다 땅을 만드는 주요 화소가 많이 등장한다.

우리나라 창세신화에도 창세신이 복수로 등장하는데 ‘미륵과 석가’, ‘대별왕과 소별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김쌍돌이본 <창세가>의 창세과정을 살펴보면,

한을과 따이 생길 적에  
彌勒님이 誕生한즉  
한을과 따이 서로 부터,  
떨어지지 안이하소아,  
한을은 북개꼭지차림 도도라지고,  
따는 四귀에 구리 기동을 세우고,

천지개벽의 주체가 뚜렷하고, 천지개벽이 창조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창세신화도 우주의 혼돈을 창조주가 정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부리야트족의 창세신화에서도 혼돈에서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말하



고 있다.

## 2. 인간 창조

인간 창조 신화소는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의 몸은 빨강색 진흙으로, 뼈는 하얀색 돌로, 피는 물(水)로 만들었다. 이런식으로 세 보르항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고, 누가 이들을 보살필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한다.

- <부리야트족 창세신화>

세 보르항에 의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부리야트족은 붉은 진흙으로 만들었고, 한국은 황토로 중국은 어질고 지혜로운 자는 황토로, 빈천하고 범용한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신화소는 한국과 몽골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미대륙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인류의 시조로 흙으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만들었다. <강춘옥본>에서는 흙으로 만든 공통점을 보이나 <김쌍돌이본>에서는 차이점이 드러난다.

사람이라 옛날에 생길 적에 어디서 생겼읍니다(까)

천지 암녹산에 가황사라는 흙을 모다서 남자를 만들어 노니 여자 어찌 생산될까?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홀기가 사람이 되는대로서, 살 동안에 따에서 만가지 물건을 내서 잡숫고 살아 노이려가다가, 사우에 떠나므느 그따에 도로 들어가 흙글 보태게 되었읍니다.

- <강춘옥본>p6.



### 3. 인세차지경쟁

우리나라 본토의 <창세가>와 제주도 지역의 <천지왕본풀이>에서 창세신의 인세차지경쟁 다툼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다툼의 주체가 <창세가>에서는 창조주인 미륵과 석가,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세상을 창조한 주제는 천지왕이고 대결은 대별왕과 소별왕으로 형제간의 다툼이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불교의 신격 명칭이 아니지만 대결의 핵심인 ‘꽃 피우기 경쟁’이라는 점에서 두 지역의 신화소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김쌍돌이본>의 창세가 중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를 살펴보면

- (1) 미륵님 세월은 태평했다.
- (2) 석가님이 내려와서 미륵님의 세월을 빼앗고자 했다.
- (3) 미륵님이 내기를 제안했다.
- (4) 동해 중에 병에 줄을 달고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했는데, 미륵이 이겼다.
- (5) 다시 석가가 내기 시합을 제안했다.
- (6) 성천강 여름에 강을 얼리기로 했는데, 미륵이 이겼다.
- (7) 다시 석가가 내기 시합을 제안했다.
- (8) 한 방에 누워서 잠을 자며 각기 모란꽃을 피우기로 했다.
- (9) 석가가 도심(盜心)을 먹고 미륵의 무릎에 핀 모란꽃을 꺾어다가 자기 무릎에 꽂아 이겼다.
- (10) 미륵이 석가에게 세월을 넘겨 준다.
- (11) 미륵이 석가 세월의 혼돈을 예언한다.

<전명수본>에서 창세가 중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를 살펴보면

- (1) 미륵님이 이 세상을 태평하게 다스리고 있었다.
  - (2) 서가열새존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당네가 되었다고 한다.
  - (3) 미륵님과 서가열새존님이 내기를 한다.
- ① 술병을 깨어 술이 공중에 떠 있게 한다. 미륵이 이겼다.



- ② 낮가리로 달걀 가리기 미력이 이겼다.
- ③ 잠자기 내기이다. 서가열새존님이 미력님 무릎의 꽃을 훔쳐서 이긴다.
- (4) 서가열새존님이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 (5)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온갖 악이 만연하게 될 것을 미력이 예언한다.

제주도 지역의 창세신화로 문창헌 필사 <천지왕본>의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을 정리하면

- (1) (천지왕이) 녀들을 불러 대웅전에 가 ‘알기’라 한다.
- (2) 소별왕이 하늘나라 이고을 저고을 구경하고 가자고 제안한다.
- (3) 대별왕이 부친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 (4) 이 문제를 두고 수수께끼를 벌인다.
- (5) 소별왕이 수수께끼에 이겨 극락계를 구경하고 대웅전에 간다.
- (6) 천지왕은 두 아들을 꾸중하고 대별왕에게는 ‘인간정치’를 소별왕에게는 ‘제향정치’를 하라고 명한다.
- (7) 소별왕이 천지왕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천지왕이 대웅전에 가 꽃사발을 나누어 주고 꽃피우기 시합을 제기한다.
- (8) 대웅전에 수보살더러 살피라 하고 꽃피우기 시합을 한다.
- (9)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극락세계 구경을 했으니 잠을 자자고 청한다.
- (10) 소별왕이 자신의 벌레 먹은 꽃사발과 대별왕의 열매 맺은 꽃사발을 바꾼다.
- (11) 소별왕이 이긴 것을 수보살이 천지왕께 고하니, 천지왕이 나와서 인간 정권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말하고 인간세상을 준다.

내기의 방식이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잠자는 사이에 꽃을 바꿔치기하는 속임수가 등장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정운학본>에서는 시합만 나오고, <김쌍돌이본>에서는 병에 줄 매달기, 여름 강 얼리기 등으로 설정되었고,



<정주병본>에서는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경쟁의 승리자는 속임수를 쓴 석가와 소별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차지했으므로 결과는 세상에 혼란과 악이 만연하게 된다.

부리야트족의 창세신화에서도 인세차지경쟁 신화소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므로 비교해보겠다.

인세차지경쟁 신화소를 정리하면

- (1) 석가모니 보르항(=석가모니불), 마이다르 보르항(=미륵불), 에세게 보르항 셋이 누가 인세를 차지할 것인지 의논한다.
- (2) 각자의 앞에 도자기를 놓아두고 누구 도자기에서 빛이 발하는가를 보다가, 석가모니 보르항이 먼저 일어나 미륵 앞의 도자기에서 빛이 발하고,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것과 바꾸었다.
- (3) 마이다르 보르항이 석가모니 보르항의 속임수를 알고 네가 차지한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도둑질하면서 살 것이라고 예언한 뒤 승천한다.

-<부리야트 신화>

부리야트족 신화소의 다른 변이를 보면 그릇 대신에 도자기도 나오고, 빛이 그릇에서 발하는 대신에 햇불이 타는 것으로 나오는 변이도 보인다.

인세차지경쟁에서 한국 신화소의 미륵은 세상을 창조한 주체인데 석가는 미륵이 창조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나 부리야트 신화에서는 신화소에 등장하는 신들은 모두 창조주들이며 자기들이 창조한 것들을 차지하려는 경쟁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미륵과 석가의 대결에서 핵심은 잠자면서 ‘꽃 피우기 경쟁’이다. 잠을 자면서 꽃 피우기 경쟁을 하는 것은 한국과 부리야트가 동일하지만 한국의 경우 무릎에 피는데 부리야트 신화에서는 그릇이나 도자기 등에 꽃이 피게 된다. 빛은 꽃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며 생명의 탄생과 번영을 의미한다.



다. 꽃이 핀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에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몽> 신화에서도 빛으로 잉태되는 신화소가 나타나고 있다.

세 나라에서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경쟁의 주체가 우리나라 본토에서도 미륵과 석가로 등장하고 오키나와 지역에서도 미륵과 석가의 대결이며 몽골 지역에서도 미륵과 석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불교의 전파와 몽골의 고려의 침입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화의 교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세 나라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통해 창세신들이 인간세상을 다스리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주만물 속에 살아있는 인간이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무속 신화에 존재하는 한국의 창세신화를 크게 본토 지역과 제주도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류큐(琉球)지역 미야코에 전승되는 <宮古島신화>와 與論島에 전승되는 <불씨> 창세신화를 분석했으며,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하고 그 변이를 살펴보았다. 동북아시아의 분포와 변이를 몽골 지역 부리아트족의 창세신화에서 찾아 변이를 고찰 해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한국 본토의 북부지역 김쌍돌이본 <창세가>를 중심으로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 분석했다. 창세신화의 핵심신화소로 천지개벽, 창세신의 거신적 면모, 물과 불의 근본, 인간창조, 인세차지경쟁, 일월조정 신화소가 있다.

미륵이 혼돈된 하늘과 땅을 구리기둥을 세워 정리하고, 大衣와 大食으로 미륵의 거신적인 모습으로 표현했고, 미륵이 풀땃독, 풀개고리, 생양쥐를 때리면서 물과 불의 근본을 찾아 인간이 생활하게 만들어 주었다. 미륵이 하늘에 축원하여 금쟁반과 은쟁반에 각각 금벌레, 은벌레가 떨어져 남자와 여자가 탄생했다. 인간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미륵과 석가 두 신격이 ‘꽃 피우기 경쟁’을 했으며, 미륵이 피운 꽃을 몰래 석가가 가져가서 속임수로 석가의 세상은 되었으나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 두 개씩인 해와 달을 하나씩으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별을 만들었다는 창세신화의 핵심 신화소를 비교 분석했다.

둘째, 제주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본풀이>을 중심으로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 분석했다. 창세신화의 핵심신화소로 천지개벽, 수명장자 징치,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 아들의 부친탐색, 해와 달의 조정, 인세차지경쟁 신화소가 있었다.

하늘과 땅의 혼합을 갈라서 천지개벽을 했는데, 행위의 주체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천지왕이 수명이의 불효와 악행을 징치하고, 천지왕과 총명부인의 결연으로 대별왕과 소별왕이 태어났다. 총명부인이 천지왕에게 징표를 받았고 그 징표를 가지고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 천지왕을 찾아 가는 부친탐색과



정이 나타난다. 두 개씩인 해와 달을 활로 쏘아 하나씩 없애는 해와 달의 조정이 나오고, 대별왕과 소별왕이 수수께끼와 ‘꽃 피우기 경쟁’을 통해 대별왕이 피운 꽃을 소별왕이 바꿔치기 해서 인간세상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창세신화의 핵심신화소를 비교 분석했다.

셋째 류큐(琉球)지역에 전승되는 창세신화가 우리나라의 창세신화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았다. 지금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포함되어 그 문화적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류큐국은 동아시아 문명권에 속하면서도 조선후기까지는 우리와 활발한 문화적 교섭을 벌였었다.

류큐의 창세신화는 사제자에 의해 전승된 것이 아니라 민간에 전승되어 설화로 존재하며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다. 우리나라 본토의 <창세가>에서 볼 수 있는 미륵과 석가의 신격이 류큐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불교 문화의 전파 과정에서 받은 영향이라 여겨진다.

琉球 지역의 미야코에 전승되는 <宮古島신화>와 與論島에 전승되는 <불씨>의 신화를 중심으로 창세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 검토했다.

<宮古島신화> 인간세상 창조의 주체 신화소와 인세차지경쟁 신화소가 있다. 천지분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미륵은 천지를 왕래 하면서 석가는 미륵이 주는 것을 받으면서 인간 세상을 만들었다. 미륵을 통해 인간이 번식할 수 있었으므로 미륵을 인간 창조의 신으로 볼 수 있다. 인간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꽃 피우기 경쟁’을 했는데 조는 버릇이 있는 미륵이 피운 꽃을 석가가 속임수로 차지해 석가의 세상이 되었다. 패배한 미륵은 모든 것을 가지고 당으로 갔다.

與論島에 전승되는 <불씨>에서 창세신화의 핵심신화소인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와 석가의 불씨 찾기 신화소가 있다. 미륵과 석가가 잠자면서 ‘꽃 피우기 경쟁’을 했는데 미륵의 꽃병에 핀 꽃을 석가가 속임수로 바꿔치기 하여 석가의 세상이 되었다. 미륵은 불씨를 가지고 용궁으로 가버리는 응징을 한다. 석가가 메뚜기를 통해 불을 다시 찾는 노력을 했다.

넷째, 한국 본토와 제주도의 창세신화의 핵심 신화소인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를 비교 분석하여 변이를 살펴보았다. 김쌍돌이본 <창세가>에서 미륵과



석가의 대결 경쟁이 인세차지경쟁으로 나타난다. 금병에 금줄을 달고, 은병에 은줄을 달고 끊어지지 않는 줄다리기 내기, 성천강을 붙이는 내기, ‘꽃 피우기 내기’를 했다. 앞의 두 번은 미륵이 이기고 ‘꽃 피우기 내기’는 석가가 속임수로 이겼다. 석가가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으며 세상에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는 대별왕과 소별왕의 대결이 인세차지경쟁으로 나타난다. 수수께끼와 ‘꽃 피우기 경쟁’에서 소별왕이 대별왕을 속이고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도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가 나온다. 명진국 따님애기와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생불왕이 되려는 노력으로 속임수는 쓰지 않고 명진국 따님애기가 생불왕이 되었다. 본토와 제주도의 창세신화에서 미륵과 석가의 명칭이 대별왕과 소별왕으로 바뀌었고,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속임수는 그대로 나타났다.

다섯째, 琉球지역의 창세신화로 미야코의 <宮古島神話>와 興論島の <불씨>신화에서 미륵과 석가의 ‘꽃 피우기 경쟁’을 살펴보았다. 석가가 미륵을 속이고 생명이 있는 세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과 琉球지역의 창세신화는 유사점이 많다. 신격의 이름이 미륵과 석가로 나타나고, 석가가 속임수를 통해 인간세상을 다스리게 된 점이다. 불교의 전파의 영향과 같은 문화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었다.

여섯째, ‘꽃 피우기 경쟁’ 신화소의 동아시아의 확대 가능성으로 몽골지역의 부리아트족의 창세신화를 살펴보았다. 불교 전파의 영향으로 신격의 이름이 유사하다. 한국과 琉球지역의 등장하는 미륵과 석가의 신격이 부리아트족의 창세신화에서는 석가모니 보르항(=석가모니불), 마이다르 보르항(=미륵불), 에 세계 보르항으로 신격이 셋이다. 석가모니 보르항이 미륵의 도자기에서 빛이 나고 꽃이 피어있는 것을 속임수로 바꿔치기 하였다. 석가의 세상이 된 것이다. 한국과 琉球지역과 부리아트족의 창세신화에서 신격의 이름이 유사하고, 속임수로 세상을 차지하게 된 점이 같다.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석가가 인간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차지하



고 싶었던 이유가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소중히 보존해주고 다스리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신의 보호와 함께 있으며 신의 사랑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김현선,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멀치아 엘리아데, 『신화와 현실』, 이은봉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5.  
신화 아카데미, 『세계의 창조 신화』, 동방미디어, 2001.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79.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2.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전인초 외 역, 『중국신화전설1』, 믿음사, 1992.  
조동일,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지식산업사, 1999.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조철수, 『한국 신화의 비밀』, 김영사, 2003.  
채런스드눔, 『몽고 민간 신화』, 이평대 역, 대원사, 2001.  
최연숙, 『민담·상징·무의식』,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카렌 암스트롱,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편무영, 『한국 불교 민속론』, 민속원, 1998.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연구논문

- 권미라, 「한국 창세시조신화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6.  
김정경, 「한국 창세신화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8.



-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 김현선, 「신화 연구 방법: 자료에서 이론까지」 미간행본 2001.
-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영 지니는 신화적 의미」
- 김현선,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
- 노로보남, 「한국과 몽골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 보람수연, 「한국과 베트남의 창세서사시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1980.



# Abstract

MA.(MS.) Thesis

## 영 문 제 목

You, Jung M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A thesis divided by a inventional mythology of Korean into the JeJulisland to the mainland compare and analyzed a mytheme(神話素). Also a study compared and analyzed with 'blossom competition' mytheme as the center the mytheme that passed down a inventional mythology Gunggodo(宮古島) in Japen's Miyako and a Bulssi in Yerundo(與論島). The author looked up the mytheme a variation and distribution of East Asia.

The inventional mythology of Korean's mainland was extracted with inventional song as the center the mytheme by Kim Ssang Dul of north part.

The study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creation, a monster face, the basic of water and fire, the god of the invention, creative of people, InSeChaJiGyeongJaeng, llwoljojong as key mytheme a BePoDoEpChim and ChenJiWangBunPuli was extracted by Jeju Iland's inventional mythology,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creation, forming a relationship CheonJiWang and JiSangGnk's wife, a father's probing action of sun, control of sun and moon, InSeChaJiGyeongJaeng as key mytheme.

The study considered with signification and meaning of the 'blossom competition' mytheme which filled with effort of gods to control a human being's world as community of the inventional mythology of Korean.

In Korean's mainland appeared Seok and MiReuk competition with a figure to control a human being's in the 'blossom competition' mytheme and Jejo showed DaeByeol and SoByeol competition with a figure to control a human being's in the 'blossom competition' mytheme.

Gods, to competition with a figure to control a human being's in the 'blossom competition', have a flow's vital force and blossom the vital force and take and exam god's ability for blossom.

MiReuk blossom during sleeping, SeokGa put a bloom on a knee of MiReuk's.

Although SeokGa was hero win and govern a human being, MiReak's foretold that at a human being's world will be rampant with evil.

This is think that a such story arise at cheat of gods to control a human being's.

In a inventional mythology Gunggodo(宮古島) in Japen's Miyako and a Bulssi in Yerundo(與論島) appeared with the invested god MiReak and SeokGa, also their turn up as common factor in 'blossom competition' mytheme.

In RyuKu myth appear history of mireak and seoga of 'blossom competition', too.

to appear mireak and seoga in Korea and Japan-ryuku can perceive of the effect of Boddhism's spread and a same cultural area.





Also 'blossom competition' mytheme showed mireak and seoga of 'blossom' in a inventional mythology of Mongolia's Buryat.

SeakGa drove off to blossomed in pottery by MiReuk because he like to control the human being's world and its be possible of expansion to East Asia. What SeokGa wented untill cheating, the human being's world is vital force, its went to preserve, values, that is able to love in god of human being.

